

2023 전주시의회
공무국외출장(뉴질랜드) 보고서



2023년도 6월

전주시의회

공무국외출장 개요

1. 출 장 국 : 뉴질랜드
2. 출장목적 : 지역 문화유산을 활용한 스마트 관광·탄소중립 및 스포츠·영화영상산업 활성화 방안 제고, 도서관 운영 사례·청년 정책을 통한 기능과 역할 탐구
3. 출장기간 : 2023-05-20 ~ 2023-05-29
4. 출장자 인적사항(18인)
 - 대표의원 : 송영진(문화경제위원장)
 - 행정위원회 : 정삼길(위원장), 최명권(부위원장), 남관우·박형배 의원
 - 문화경제위원회 : 전윤미(부위원장), 김윤철·박혜숙·신유정·온혜정·이성국·장병익 의원
 - 의회사무국 : 김형철(행정전문위원), 최훈석(문화경제전문위원), 김태양·이용도 주무관
 - 전주시청 : 최락기(기획조정국장), 김진완(도서관본부 시설조성팀장), 장애숙(관광산업과장), 유상봉(체육산업과장)

목 차

I. 출장 준비 사항	1
1. 공무국외출장 사전설명회	1
2. 방문국가 사전 자료 조사	2
II. 출장 세부내용	11
1. 출장일정 및 주요내용	11
2. 연구과제별 주요 연수 내용	13
III. 전주시 도입과제 및 정책적 시사점	23
1. 스크린 산업을 통한 지역 관광 활성화 전략	23
2. 교육과 체험을 통한 청년 정치·사회 참여 유도 방안	27
3. 어린이 도서관의 공간 구성과 활성화 방안	32
4. 지역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액티비티 다양화 전략	36
5. 전주시의 생태관광과 체류형 관광객 유치를 위한 등산 및 걷기 코스 개발	42
6. 전주시의회 국제교류협력 활동 강화	45
IV. 의원 개별 연수보고서	49
V. 수집자료 및 참고문헌	133

I. 출장 준비 사항

1. 공무국외출장 사전설명회

(1) 1차 사전설명회

- 일시: 2023. 5. 15.(월) 15:00
- 장소: 전주시의회 5층 소회의실



(2) 2차 사전설명회

- 일시: 2023. 5. 19.(금) 14:00
- 장소: 전주시청 지하 정보화교육장



2. 방문국가 사전 자료 조사

(1) 방문국가 현황¹⁾

가. 일반사항

- 국 명 : 뉴질랜드(New Zealand)
- 수 도 : 웰링턴(Wellington)
- 인 구 : 약 508만명('20.11월, 통계청)
- 면 적 : 27만km² (한반도의 1.2배)
- 민족구성 : 유럽계 74,% 마오리계 15% 아시아계 12%, 남태평양계 7% ('13년 Census 기준, 중복응답허용)
- 종 교 : 개신교(35%), 카톨릭(13%)
- 언 어 : 영어, 마오리어
- 시 차 : 우리나라보다 4시간 빠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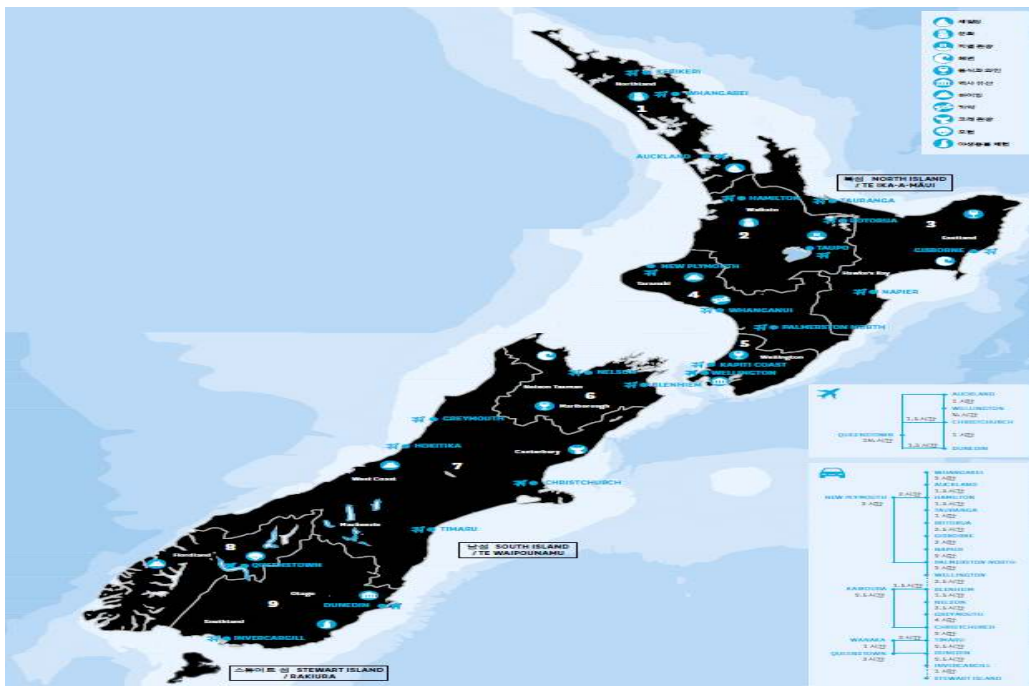


그림 2 뉴질랜드 관광/교통 지도

1)외교부_뉴질랜드_약황정보(23.01.31), https://www.mofa.go.kr/www/nation/m_3458/view.do?seq=8

나. 정치현황

- 정부형태 : 의원내각제(영국여왕이 국가원수, 총독이 대리)
- 의회구성 : 총 120석(20.10.17 총선, 단원제)
- 주요 인사
 - 총 독 : Cindy Kiro(女)
 - 총 리 : Chris Hipkins(男)
 - 국회의장 : Trevor Mallard(男)

다. 경제현황 ('20, Worldbank)

- 총 GDP : 2,107억\$ (1인당 GDP : 41,442\$)
- 총교역 ('19) : 817억\$ (수출 : 395억\$, 수입 : 422억\$)
- 경제성장률 : 1.9% / 실업률 : 4.1%

라. 우리나라와의 관계

- 수교일자 : 1962.3.26
- 교민현황 : 33,812명 ('21 재외동포현황)
 - ※ 뉴질랜드 전체 인구대비 약 0.7%에 해당, 아시아계 이민자 중 중국(17만명), 인도(14만명), 필리핀(4만명)에 이어 4번째
 - ※ 한국 내 뉴질랜드인 : 4,884명('18.6월)
- 인적교류 ('19, 한국관광공사)
 - 한국인 뉴질랜드방문 : 88,431명
 - 뉴질랜드인 한국방문 : 38,954명
- 교역 ('22, KITA) : 53.5억불(수출 : 34.9억불, 수입 : 18.6억불)
- 투자 현황 (누적 신고기준)
 - 對뉴질랜드투자 : 5.43억불('20.9월)
 - 對한국투자 : 1.67억불('20.12월)

(2) 뉴질랜드 산업 특성

가. 산업 특성²⁾

- 뉴질랜드에 있어 관광산업은 매우 중요한 산업으로, 1901년 세계 최초로 관광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전담 기관을 설치할 만큼, 관광산업은 뉴질랜드 경제에 있어 기여도가 높은 산업임
- 관광산업은 1901년 당시 5,000명이었던 관광객이 2021년에는 연간 280만명에 달하고 있으며, 이제 숙박, 운송, 요식업 등 다양한 분야에 있어 부가가치를 만들어 내는 산업으로 자리매김함
- 뉴질랜드 관광청은 관광산업의 성장과 대내외 홍보를 담당하고 있으며, 관광산업 육성 정책과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관광산업 홍보를 위해 여러 나라들과의 국제적인 협력을 추진과 정기적으로 관광산업과 관련한 전략 보고서를 발간해 중장기적인 계획과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도모하고 있음
-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는 뉴질랜드는, 오염되지 않은 대자연과 이를 즐길 수 있는 아웃 도어 레포츠 산업을 연계해 관광산업의 성장을 추진하고 있음
- 정부는 자연 환경과 인간의 지속 성장에 기반한 관광산업 성장을 강조와 환경보호를 가장 우선시하며, 아울러 뉴질랜드 전통인 마오리(Maori) 문화와 연계된 다양한 관광 테마 등을 발굴해 관광산업 활성화를 통한 지역 내수경기 진작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음

2) 코트라_2021년 뉴질랜드 관광산업 정보 참고



그림 3 뉴질랜드 관광산업 전략 보고서 (뉴질랜드관광업협회, 뉴질랜드관광청)

- 뉴질랜드 정부 차원에서는 관광업에 있어 적극적인 육성과 지원을 장려하고 있으며, 해당 산업에 대한 특별한 규제정책이나 제한을 두지 않고 있음

나. 뉴질랜드 정부 관광 전략³⁾

- 외국인에게 굳게 걸어 잠근 국경을 2022년 7월 말부터 다시 완전히 개방함에 따라, 뉴질랜드 정부의 관광 전략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뉴질랜드 정부 관광 전략은 관광 분야에서 정부의 보다 신중하고 적극적인 역할을 제시하고 있는데 뉴질랜드 정부는 관광 시스템 전반에 걸쳐 관광 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투자와 개입을 통해 행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자 하며, 현 뉴질랜드 정부 관광 정책의 근간이 되고 있는 관광 전략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3) 한국관광 데이터랩, 2022, (뉴질랜드) 뉴질랜드 정부 관광 전략 내용 참고

○ 관광전략 핵심가치

- 경제 번영 및 웰빙
- 타인에 대한 공유된 존중, 환대, 관대함 및 보살핌
- 보호자/지속가능성
- 가족과 소속감, 공유된 경험과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관계

○ 관광전략 목표

- 지속가능한 관광 성장*을 통해 뉴질랜드를 풍요**롭게 함.

* 생산적이고, 지속가능한 포괄적인 성장

** 관광을 통해 뉴질랜드의 사회적, 문화적, 환경적 그리고 경제적 웰빙을 개선. 이는 뉴질랜드 정부의 경제 전략 목표인 생산적이고, 지속가능한 포괄적인 성장과도 연결이 됨

○ 관광전략 기대성과 및 실행방안

- 관광전략을 통해 기대되는 통합된 기대성과를 5가지 분야로 분류하였으며, 기대성과별 실행방안도 함께 마련함

① 경제

· 기대성과 : 관광부문 생산성 향상

· 실행방안

- 관광가치 제고 : 고부가 가치를 지닌 외래 관광객을 대상으로 비수기와 성수기 사이에 뉴질랜드를 여행할 수 있는 마케팅을 진행하여, 뉴질랜드가 관광 위기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시장 다각화와 고부가 여행층을 타겟팅해서 유치
- 장기간 지속가능한 자금 조달 체계 구축 :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환경 및 관광 분담금 제도를 운영하여 지속 가능한

자금 조달 체계 구축

- 관광시스템 역량 제고 : 관광 인력의 기술력 향상을 위해 교육과 훈련을 강화하고, 이민 제도와 노동시장 정책을 통해 인력 부족 문제에 대응합니다. 또한, 교육기관과 관광업체가 협업하여 교육과 관광 취업을 연결시켜 역량을 강화하며, 관광업체들이 필요로 하는 지원에 대한 이해도 제고
- 데이터 및 인사이트 강화 : 미래 트렌드와 글로벌 메가 트렌드를 파악하여 관광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는 데이터와 인사이트를 조정하고 공유하여 업계 지원

② 환경

- 기대성과 : 뉴질랜드는 생태 관광의 차원에서 자연을 보존하며, 문화 및 역사의 계승을 위해 유적을 보호·재건·옹호함.
- 실행방안
 - 뉴질랜드의 천연수도와 토착 생물 다양성 보호 및 복원: 관광 및 방문객 증가가 자연 환경, 문화 및 역사적 유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깊은 이해를 구축하고, 외국 관광객을 대상으로 환경 보전 및 관광세 부과 제도를 시행하여 관광업체가 보전과 복구를 용이하게 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저배출 및 기후 회복력이 있는 뉴질랜드로의 전환: 기후 변화와 저배출 경제로의 전환이 관광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해 심화
 - 관광객이 뉴질랜드의 보호자 역할을 하도록 권장 : 해충 및 질병의 유입과 확산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광객들의 보호자 역할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긍정적인 방문자 행동을 촉진하기 위해 행동 변화를 촉구함

③ 내·외국인 관광객

- 기대성과 : 특별한 방문자 경험 제공
- 실행방안
 - 뉴질랜드 브랜드 프로포지션(Brand proposition)⁴⁾ 구축 및 유지 : 관광 목적지 브랜드를 사람과 문화와 통합하여 관광 목적지 관리 계획을 통해 명확한 지역 브랜드 프로포지션 유도
 - 고품질의 진정한 방문자 경험 제공 : 원주민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전하고 장소의 가치를 공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다른 기관들과 협력하여 원주민 관광 기회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원주민 문화를 반영하는 진정한 경험을 전달
 - 관광객 모니터링 및 데이터 예측 : 방문자 분석을 통해 인사이트를 도출하고 예측에 활용
 - 안전한 경험 장려 : 관광객 운전자들의 안전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관련 기관 및 업계와 협력하여 야외 활동 시 관광객의 안전을 위한 조율과 협업 강화 및 공공 보존 토지에서 관광객 경험을 위한 적절한 위험 허용 범위 정의

④ 뉴질랜드 국민과 지역사회

- 기대성과 : 뉴질랜드 국민의 삶 개선을 위한 관광
- 실행방안
 - 원주민들을 위한 기회 : 원주민과 협력하여 관광목적지 관리 및 현장 계획에 대한 효과적인 참여 지원
 - 뉴질랜드 국민들의 경험 높이 평가 : 관광 실무그룹들의 권고 사항 실행 업계 지원을 포함한 관광목적지 준비 작업 프로그램

4) 해당 브랜드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가치와 목표점을 한마디로 함축시킨 가장 근간이 되는 전략적 개념

램 지속 추진

- 활기찬 뉴질랜드 지역사회에 기여 : 교육에서 관광 취업으로의 연결 강화를 위해 업계 및 교육기관과 협업. 커뮤니티 시설 및 인프라 구축.

⑤ 지역

- 기대성과 : 번성하는 지속가능한 지역 지원
- 실행방안
 - 관광 목적지 관리 및 계획: 모범 사례 가이드라인과 지원을 통해 관광 목적지의 관리 사례와 계획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지역들이 관광 목적지를 전략적이고 일관성 있는 방식으로 계획, 관리, 시장화,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
 - 역량 개발 및 파트너십: 관광 부문과 지역 전반에 걸친 관광 목적지 관리 계획의 역량을 향상 시키고, 지역과의 협업을 통해 관광 목적지 관리 계획의 실행을 지원하며, 지속 가능한 자금 조달 및 투자 접근성 향상
 - 지역 데이터 : 내외국인 관광객의 지역 방문, 흐름, 동기 및 만족도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기 위해 새로운 데이터 조사/위임을 통해 관광이 지역 경제, 생산성, 고용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해 향상⁵⁾

(3) 산업의 수급 및 투자 동향

- 원예·낙농 등의 1차산업 및 관광산업은 뉴질랜드를 대표하는 산업으로, 앞으로도 관광을 위해 해외에서 방문하는 외래

5) (뉴질랜드) 뉴질랜드 정부 관광 전략_한국관광 데이터랩 시드니지사 관광시장동향, 2022.08.30.
https://datalab.visitkorea.or.kr/site/portal/ex/bbs/View.do?ksessionid=mNDoYM1nxsHPRI_DYkQlMukGpdAxCPjY5NBJWxkj.wiws02?cbIdx=1132&bcIdx=301411&cateCont=&searchKey=&searchKey2=&tgtTypeCd

관광객 수와 관광을 통해 사용되는 지출 모두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관광객수는 2017년 이후부터 매년 4.6%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2024년에는 전체 관광객 수가 510만명⁶⁾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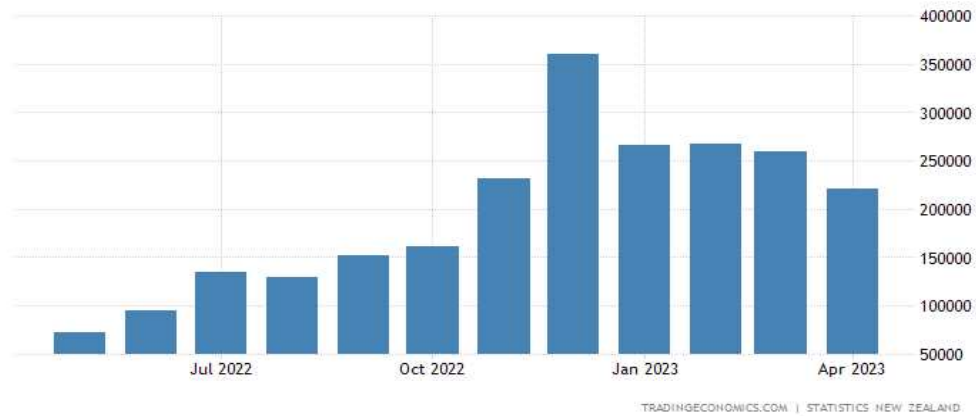


그림 4 뉴질랜드 외래 관광객 수

- 관광객들의 현지 소비지출 역시 2017년 대비 39.7% 증가해 2024년에는 95억 미국달러 (148억 뉴질랜드 달러)⁷⁾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며 내수경기 진작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됨



그림 5 뉴질랜드 관광 수입

6) TRADING ECONOMICS(<https://ko.tradingeconomics.com/new-zealand/tourist-arrivals>)

7) CEID DATA(<https://www.ceicdata.com/ko/indicator/new-zealand/tourism-revenue>)

Ⅱ. 출장 세부내용

1. 출장일정 및 주요내용

구분		주요내용
1일차 (5.20)	출국	인천공항 집결 및 출국
2일차 (5.21)	도착	뉴질랜드 오클랜드 국제공항 도착
	기관방문	오클랜드 한인회장 간담회 『전주한옥을 활용한 한옥 한인회관의 건축과 전주 홍보, 한국적 참전용사 추모비 조성 현장 방문』
3일차 (5.22)	기업방문	KUMEU FILM STUDIO 『관광자원으로서 영화산업의 육성을 위한 촬영 스튜디오의 역할』
	기관방문	오클랜드 타운홀(舊, 시청사) 『시청의 이전 및 구청사를 활용한 도심형 MICE 공간 활용법』
4일차 (5.23)	기관방문	Rings Scenic Tour Limited 방문 『지역관광자원으로서 영화 세트장의 운영(보존, 법인화 등)과 지역 경제 기여』
5일차 (5.24)	선진지 견학	로토루아 지역 생태관광 산업 선진지 견학 『자연과 관광산업의 융합-뉴질랜드의 생태관광과 에코 투어리즘(Eco-Tourism)』
6일차 (5.25)	간담회	재외동포 5선 국회의원 Melissa Lee 간담회 『청년과 여성의 사회적, 정치적 참여기회 확대를 위한 뉴질랜드의 사례 연구』
7일차 (5.26)	기관방문	크라이스트처치 투랑가 도서관 방문 『시민들의 복합문화공간으로서 공공도서관의 기능과 역할, 지진대비에 완벽한 도서관 건축의 노하우』
8일차 (5.27)	선진지 견학	아오라키 마운트쿡 국립공원 방문자 센터 방문 및 트레킹 체험 『쇼핑, 박물관, 회의실 공간을 결합한 뉴질랜드의 지역 관광 안내소 및 트레킹 관광 선진지 체험』
9일차 (5.28)	기관방문	오클랜드 한인 생활체육회 방문 『스포츠관광 활성화를 위한 생활체육의 역할과 뉴질랜드의 청소년 스포츠 정책 Balance is Better 학습』
10일차 (5.29)	출국	오클랜드 공항 집결 및 출국 인천공항 도착

2. 연구과제별 주요 연수 내용

□ 오클랜드 한인회 간담회

- 오클랜드 재외동포와의 교류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간담회 및 한국 도서 기증식
 - 오클랜드 재외동포 대상 전주시 문화 홍보를 위한 전주 독립서점 선정 도서 100권 기증
 -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전주시의 다문화 가정을 위한 전주시 도서관의 활용법 논의

- 오클랜드 한인회관 및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관 내 전주 한스타일 홍보와 조성 업무협약
 - 전주 한옥의 세계화를 위한 오클랜드 한인회와의 지속적 협력관계 구축
 - 한인회관 내 전주시 한(韓) 스타일 홍보 공간 구축 협약
 - 한옥 스타일 참전용사 기념비 및 기념관 건립 시(23년 11월 착공 예정) 자문 예정



□ KUMEU FILM STUDIO(쿠메우 필름 스튜디오) 방문 및 간담회

○ 전주시 영화산업 발전을 위한 KUMEU FILM STUDIO 방문 및 간담회

- 관광자원으로서의 영화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영상 촬영 스튜디오 역할 논의
- 전주영화종합촬영소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한 스튜디오 활용 방안 및 구성 방법 논의
- 지역 인프라(지역 내 대학 스크린 산업 관련 학과)를 활용한 스튜디오 연계 방안 논의
- 전주시와 쿠메우 필름 스튜디오 상호 장소 협조 및 자문 등 지속적인 협력관계 구축



□ 오클랜드 부시장 Desley Simpson(데슬리 심슨) 간담회 및 舊 오클랜드 청사 방문

○ 전주시와 오클랜드시의 협력 관계 구축

- 가장 한국적인 도시인 전주시의 한옥, 한지, 한식에 대한 홍보
- 뉴질랜드의 전통 축제(마오리 축제)와 영화산업에 있어 시 차원의 지원 방안 파악
- 도서관, 생활체육, 생태관광 정책에 있어 양 도시 간 지속적인 소통 및 교류 협의

○ 행정재산 이전 시 공간 활용 방안 학습

- 舊 시청사(1911년 개관) 이전에 따른 공간 활용 방안 학습 (의회 회의, 청문회, 공연장으로 활용)
- 6년간의 복원작업 끝에 전통을 되살려 관광객이 찾는 역사적인 공간으로 활용



□ 호비튼 무비 세트 투어스 방문 및 간담회

○ 지역관광자원으로서 영화 세트장의 운영(보존, 법인화 등)과 지역 경제 기여

- 영화 세트장을 활용한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 효과 파악
- 많은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지자체 역할 논의
- 영화산업을 지역의 주력산업으로 선정하게 된 계기 및 관련 정책 논의



□ 로토루아 지역 생태관광 산업 선진지 견학

○ 자연과 관광산업의 융합 뉴질랜드의 생태관광과 에코 투어리즘(Eco-Tourism)

- 별도의 시설 설치 및 막대한 예산 없이도 자연을 활용한 생태 관광 산업화 방법 확인
-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설치한 곤돌라, 루지, 짚라인, 산악자전거 체험 등을 활용하여 다수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방안 점검 (아중저수지 케이블카 설치 시 활용 가능)
- 전통문화와 관광산업을 연계하여 문화를 계승하면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방법 논의

	
<p><아그로돔 농장></p>	<p><레드우드 수목원></p>
	
<p><스카이 타워></p>	<p><마오이족 전통 공연></p>

□ 재외동포 5선 국회의원 Melissa Lee 간담회

○ 청년과 여성의 사회적, 정치적 참여기회 확대를 위한 뉴질랜드의 사례 연구

- 어려서부터 사회/정치에 직·간접적으로 참여 가능한 방안 논의
- 청년 일자리 확충 및 거주 지원을 위한 국가 및 지자체의 역할 논의
- 다문화, 다언어, 다민족으로 구성된 도시에서의 차별 및 갈등 해소 방안 논의
- 뉴질랜드 정부와 전주시의 지속적인 교류 협력 활동 및 사업 방안 협의



□ 크라이스트처치 투랑가 도서관 방문

○ 시민들의 복합문화공간으로서 공공도서관의 기능과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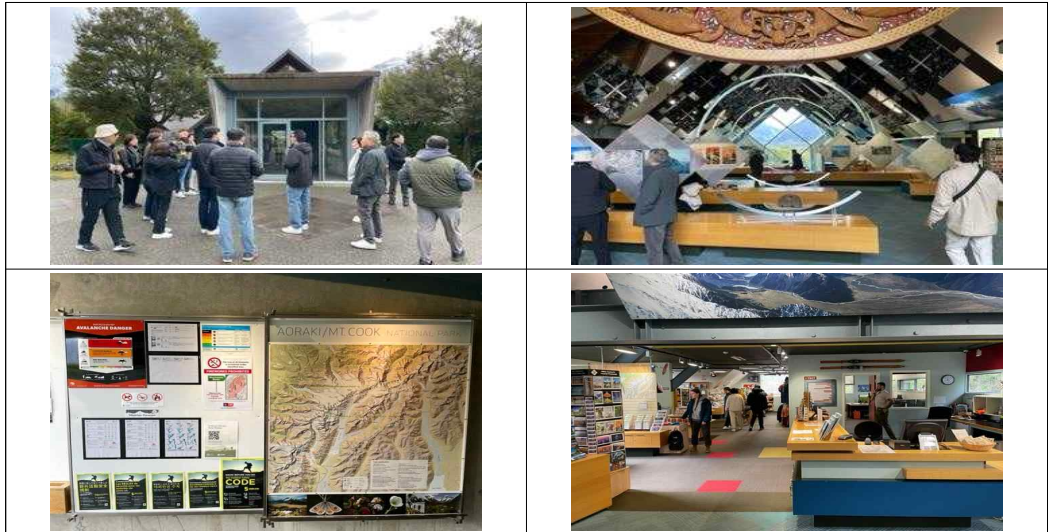
- 도서관 시설 내 아이들이 직접 놀며 체험할 수 있는 공간 역할 논의
- 서류 및 3D 데이터 작업을 통한 시민들의 기록물 보관 방안 확인
- 도서관 내 창업 등 체험 공간 부스를 통한 다양한 활동 기회 제공 방안 확인
- 지진 대비 설계 및 도서 자동 분류화 방식 확인
- 주기적으로 양 도시 간 상호 도서 기증 협의



□ 아오라키 마운트쿡 국립공원 방문자 센터 방문 및 트레킹

○ 쇼핑, 박물관, 회의실 공간을 결합한 뉴질랜드의 지역 관광 안내소 및 트레킹(Trekking) 관광 학습

- 지리적인 한계로 인한 MICE 설치 어려움 해소를 위한 지역 관광안내소 활용 방안 파악(서울 도심 등산관광안내센터와 유사)
- 자연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한 트레킹 주변 상업시설 설치 제한 사례 확인



□ 뉴질랜드 한인 생활체육회 방문

○ 스포츠관광 활성화를 위한 생활체육의 역할과 뉴질랜드의 청소년 스포츠 정책 학습

- 2023 전주 세계 시니어 배드민턴 선수권 대회 공동 홍보 및 대회 참가 유치를 위한 활동 협약
- 생활체육 활동을 통한 이민자들의 현지 정착 도움 방안 논의
- 대한민국 10대들의 체육활동 기피현상 해결을 위한 뉴질랜드의 생활체육을 통한 청소년 스포츠 활동 유도 방안 확인



Ⅲ. 전주시 도입과제 및 정책적 시사점

1. 스크린 산업을 통한 지역 관광 활성화 전략

- 뉴질랜드는 ‘반지의 제왕’이라는 전 세계적인 영화 작품 제작을 통해 영화 촬영장소와 사후 촬영 작업장소로 세계적인 영화제작자들의 이목을 받으며, 현재에 있어서는 뉴질랜드의 가장 주요한 산업으로 자리 잡아 막대한 직·간접적 경제효과를 불러일으킴
- 예를 들어, 영화는 스크린을 통해 보여지는 영상과 적절한 상황 연출을 위한 음악, 내러티브와 같이 다양한 요소들을 한 번에 마주할 수 있는 복합문화 콘텐츠로 다른 예술 분야에 비해 대중들에게 미치는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남
- 특히 뉴질랜드는 스크린 산업은 영화가 국가이미지 제고와 부가가치 창출(고용 증대와 고부가가치 등의 수익)의 수단이 됨
- 뉴질랜드 정부는 ‘반지의 제왕’ 홍보비로 1,870만 달러 이상을 지출하고 영화촬영지의 관광화 산업을 위해 투자하면서 엄청난 관광 수입을 벌였으며, 단역배우 출연 등을 비롯해 숙박, 요식업 운영 등을 통해 총 2만여 개의 신규 고용을 창출함
- ‘반지의 제왕’의 흥행으로 외국 관광객 수가 계속하여 증가하면서 관광산업이 뉴질랜드 최고의 수출산업으로 성장하면서 국가이미지 제고는 물론, 광고효과는 4,800만 달러로 ‘반지의 제왕’ 흥행 성공에 따라 뉴질랜드 경제에 미친 파급효과를 ‘프로도 경제’(Frodo Economy)⁸⁾라고 일컫는 신조어도 탄생함
- 영화와 드라마는 관객과 시청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며, 그

8) 원작 소설이 영화로 제작되고 게임, 캐릭터상품 개발은 물론, 관광지과 테마파크 개발로 이어지는 문화 연쇄효과는 영화 ‘반지의 제왕’이 뉴질랜드 경제에 미친 파급효과인 이른바 프로도 경제(Frodo Economy)를 통해 입증된 바 있음

들이 방문하는 촬영지는 또 다른 문화 자산으로 간주되어 극적인 스토리텔링을 통해 촬영지를 이전과 다른 공간으로 변모시킴으로써 가능해지는 현상⁹⁾이 주를 이루는데 최근 K-콘텐츠의 뜨거운 한류 열기를 타고 영화, 드라마 등 ‘K-콘텐츠’의 촬영지가 ‘한류 명소’로 거듭나면서 새로운 관광지가 되고 있음

<국내사례>

‘겨울연가- 남이섬’, ‘모래시계-정동진’, ‘서편제-청산도’

<국외사례>

‘러브레터-오타루시’, ‘해리포터-세인트 판크라스 역, 킹스크로스 역’, ‘반지의 제왕-호비튼’ 등

- 전주시 역시 tvN 드라마 '스물다섯, 스물하나'의 주요 촬영지로 주인공들이 처음 만나는 '크로싱 게스트하우스'를 비롯하여 '전주 제일고', '한벽터널', '아현슈퍼', '베테랑 칼국수' 등 전주시의 다양한 장소가 관광 명소화됨
- 또한, 인접한 완주군은 BTS의 뮤직비디오와 화보 촬영지로 사용된 아원 고택 및 오성제 저수지의 소나무 한그루는 현재, 전 세계 각국의 아미들이 찾아오는 성지인 'BTS 로드'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실정임
- 이외에도, 전주시는 장편 애니메이션 '소중한 날의 꿈', '기생충' 등 한국의 K-콘텐츠에서 중요한 촬영지로 알려져 있으며, 많은 관광객들에게 인기 있는 명소임
- 촬영장 유치는 지역의 브랜드를 높이고 지방산업 성장모델로서 중요한 방식이 될 수는 있으나, 사전 준비와 철저한 계획 없이

9) 실제로 많은 관광객들이 ‘반지의 제왕’의 주인공 프로도가 걸던 길을 걸기 위해 통가리로 국립공원의 트레킹 코스를 찾거나 호빗 마을을 보기 위해 와이카토 지역을 방문하기도 함. 영화 속 ‘절대반지’가 제작된 넬슨의 실제 보석상을 둘러보거나 영화의 배경이 된 광활한 숲과 계곡, 호수를 한 눈에 내려다 볼 수 있는 쿼스타운의 헬기투어 또한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코스임. 이러한 영화 촬영지에서는 실제로 영화제작에 참여했던 지역 사람들에게 가이드를 받을 수도 있음.

는 공간만을 차지하는 애플단지로 전략할 수 있기에 구축 단계부터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 다만, 영화나 드라마의 내용에 과도하게 몰입되어 특정 테마를 중심으로 국한 시키면 1차례의 방문 이후 지속적인 방문을 유도하는데 어려움이 많기에 이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새로운 컨셉트의 테마들을 접목시켜 영화나 드라마 종영 이후에도 살아남을 수 있는 관광지로 남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
- 올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밝힌 2023년도 업무계획 6대 중점과제를 보면 K-콘텐츠에 7,900억 원 정책금융 지원과 1만 명 콘텐츠 인재양성, K-브랜드 홍보관, K-박람회를 통해 연관 산업 수출을 지원하고자 하고 있음

문화체육관광부 2023년도 업무계획 6대 중점과제

국민이 함께하는 문화매력국가
케이-컬처가 이끄는 국가도약, 국민행복

<p style="text-align: center;">케이-콘텐츠, 수출지평을 바꾸는 게임체인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콘텐츠 스타트업·벤처 관 주게 지원 • 역대 최대 7,900억 원 정책금융 지원 • 1만 명 콘텐츠 인재양성 • 해외 거점 15개소로 콘텐츠 기업 진출 확대 • 케이-브랜드 홍보관, 케이-박람회를 통해 연관 산업 수출 지원 	<p style="text-align: center;">2023년, 관광대국 원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3 한국방문의 해 선포 • 케이-컬처 이벤트 100선 및 세계 15개 도시 케이-관광 로드쇼 개최 • 청와대 역사문화관광플라스타 브랜드 조성
<p style="text-align: center;">예술, 케이-컬처의 차세대 주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년예술인 생애 첫 지원 및 예술대학생 역량 강화 (신규 50억 원) • 한국문학 유물문물품(KLWAVE) 운영 등 분야별 해외 진출 지원 • '아트코리아랩' 조성(23.6월 준공) 	<p style="text-align: center;">문화로 이끄는 지역균형발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한민국 문화도시 지원(7개소) • 문화취약지역 맞춤형 지원 • 케이-관광 휴양벨트(상장 3주 현 '23~'30') 거고 싶은 케이-관광 섬 등 지역관광 활성화
<p style="text-align: center;">'약자 프렌들리'로 모두가 누리는 문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 시행(23년) 및 장애인예술인 표준 공연장 개관(23년) • 박물관·미술관 무장애 관람환경 조성, 장애인 아스포츠 대회 최초 개최 • '이야기탐험대' 장애인·노년·여성 예술인 스타 발굴 	<p style="text-align: center;">다시 뛰는 케이-스포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동하는 국민 인센티브 프로젝트' 도입 (10대 국민 현. 1만 명) • 학교 운동부 창단 지원 사업 신설(20개교) • 학생선수 출석인정일수 기준 완화 • 피음 등 케이-스포츠 대표 브랜드 육성

문화체육관광부

그림 10 문화체육관광부 2023년도 업무계획 6대 중점과제

- 전주시 역시 영화 콘텐츠 산업을 지속하고자 독립영화의 집 건립 및 K-film 제작기반 및 영화산업 허브 구축을 주요 업무로 내세우고 있으므로 정부의 기조와 발맞춰 정부의 지원을 필두로 스크린 산업에서 가장 앞서 나가는 지방자치단체가 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11 전주 독립영화의 집 건립

- '18.~'25. / 590억 원 / 구 옥토주차장 부지
- 독립·예술영화 전용상영관 및 라키비움, 아카데미, 시네파크 등 영상문화복합공간 조성

12 K-film 제작기반 및 영화산업 허브 구축

- '21.~'25. / 238억 원 / 전주영화종합촬영소 일원
- 버츄얼프로덕션(VP) 전문 스튜디오 구축, k-film 특성화 세트장 조성 등 제3의 영상거점도시 확립

그림 11 전주 영상 산업(출처 : 전주시 주요업무계획)

- 스크린 산업에 관한 철저한 분석과 향후 정책 수립에 있어 전략적으로 접근한 뉴질랜드 스크린 사업의 성공적인 성장사례를 바탕으로 스크린 산업에 대한 전략적 지원과 투자가 동시에 이루어진다면 전주시 스크린 산업 역시 경제효과가 큰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음
- 이번에 방문한 KUMEU FILM STUDIO(쿠메우 필름 스튜디오)는 스크린 산업을 통한 다양한 산업(음악, 건설, 제작 등)과의 연계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구축해 내고 있으며, 매년 새로운 작품 촬영을 위해 기존의 존재해온 것을 파괴하고 창조하면서 계속하여 산업이 지속됨을 보여줌으로써 전주시 영화촬영소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였음

2. 교육과 체험을 통한 청년 정치·사회 참여 유도 방안

- 2015년 11월, 캐나다에서 자유당 대표로 43살의 저스틴 트뤼도가 총리에 취임하였고, 2017년 5월에는 중도 성향 정당인 앙 마르슈의 에마뉘엘 마크롱이 39살의 나이로 프랑스 대통령으로 당선되었고, 그 해 10월에는 37살의 저신다 아던이 뉴질랜드에서 노동당 대표로 총리로 취임하였음
- 이는 바로 '청년 정치지도자 시대'의 개막을 의미하는 것으로, 국가 지도자뿐 아니라 장관과 국회·지방의원들 중에서도 청년들의 비율과 영향력이 점점 높아지고 있음

구분	9대	10대	11대	12대
청년비율	5.9%	6.1%	5.9%	20%

표 13 전주시의회 대수별 청년(~39세 이하)비율표

- 이렇게 청년 정치지도자들의 등장과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는 기존의 정치적 상황에 큰 변화를 가져왔으며, 이는 민주주의의 발전과 혁신에 기여하고 있으며, 청년 정치지도자들은 기존의 구태에 염증을 느낀 유권자들과 함께 현실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고 미래를 위한 변화를 추진하는 데에 큰 역할을 하고 있음
- 청년들은 교육과 취업 기회의 부족, 주거와 교통에 어려움을 겪는 등 여러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청년 정치의 환경 요인으로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정치에서도 청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로 청년들은 혁신과 변화를 이끌어내는 역할을 맡을 수 있으며, 그들의 창의성과 열정은

사회의 발전과 진보를 이루는 데에 기여함

- 전주시 역시 정책에 청년 참여를 권장하기 위해서 ‘전주시 청년희망도시 구축을 위한 조례’를 2017년에 제정하여 ‘청년희망단¹⁰⁾’을 시행중에 있음

전주시 청년희망도시 구축을 위한 조례

제23조(청년희망단) ① 시장은 청년 관련 각종 정책을 제안하고 청년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청년들로 구성된 청년희망단을 둔다.

② 청년희망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 청년의 의견수렴 및 정책 제안
2. 청년문제 발굴, 조사, 개선방안 모색
3. 개발된 청년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및 참여
4. 국내외 청년 단체·협의체와의 협력 및 교류
5. 제17조에 따른 위원회와의 상호 협조
6. 활동보고서 발간 등

③ 청년희망단은 청년을 대상으로 공개모집하며, 청년희망단 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을 선정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④ 청년희망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정책 분야별 분과회의를 둘 수 있다.

⑤ 청년희망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청년정책 업무 담당이 된다.

⑥ 그 밖에 청년희망단의 구성·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청년희망단의 주요 활동으로는 ‘청년문제 발굴·조사·개선방안 모색’, ‘개발된 청년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및 참여’, ‘국내외 청년단체·협의체와의 협력 및 교류’, ‘청년희망도시 정

10) 청년문제를 발굴하고 청년정책의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등 청년의 의견이 시정에 반영되기 위한 청년과 행정의 소통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

책위원회와 상호 협조' 등이 있으며 정책사업을 제안하고 각종 아이디어 제출과 캠페인을 하고 있음

- 청년희망단이 발굴하여 실제 시정에 반영된 사업으로는 작은 결혼식 지원, 온라인 플랫폼 구축, 청년 깡이어, 지역청년 JOB소통 사업 및 청년통합지원팀 구축 등이 있음
- 다만, 청년희망단이 발굴한 사업이 예산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해 단기적인 정책으로 사업이 종료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장기적인 사업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별도의 예산과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한 상황임
- 또한, 대부분의 청년 정책이 국비, 도비 등의 매칭을 통해 시비를 일부 지원해주는 형태일 뿐 전주시만의 특색 있는 청년 지원 정책은 찾아보기 힘든 상황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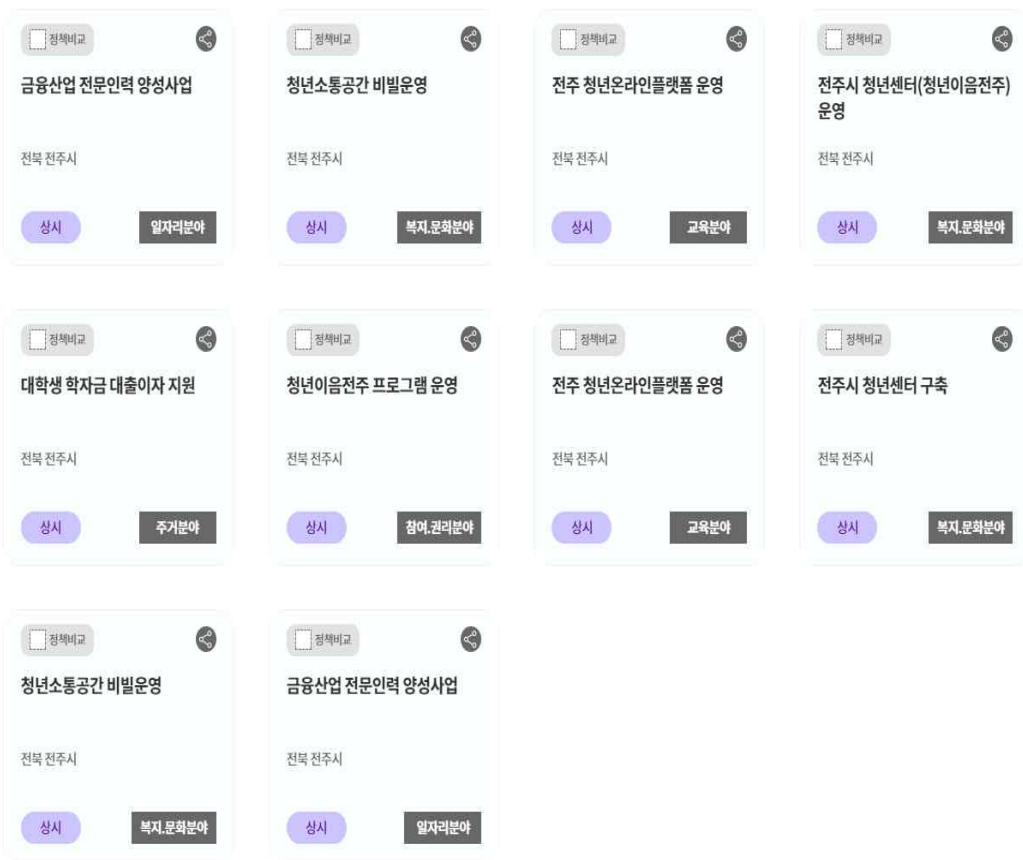


그림 12 전주시 청년 정책(출처 : 온라인 청년센터)

- 이러한 이유로 청년희망단 참여율이 저조해지고 있어 실효성 있는 활동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기에 청년들의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이 필요함
- 뉴질랜드의 경우, 1944년부터 중고등 교육과정에서 정치 참여와 시민교육을 진행하는 이른바 조기 정치 교육을 통해 탄소중립·기후 변화 등 다양한 사회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참여 및 행동하라고 가르치고 있음
- 최근에는 청소년과 청년들이 실연의 아픔을 해소하기 위해 가족에게 해를 입히지 않기 위해 상담 전화 등을 통해 도움을 주는 방식 등의 캠페인 정책 등이 시행됨
- 청년 정책을 가장 활발히 시행하고 있는 서울시 역시 청년자율예산제 온라인 대시민투표 결과 시민들이 가장 많이 투표한 정책은 ‘청년 마음건강 지원’인 것으로 미뤄보아 청년들의 마음을 치유해주는 정책이 필요함을 알 수 있음

순위	정책명	득표수	비율
1	청년 마음건강 지원	6,533	14.4%
2	원룸촌 분리배출함 설치 및 개선	5,583	12.3%
3	서울형 도심 자전거 도로 네트워크 구축	5,332	11.8%
4	자립준비청년의 사회적자립을 위한 퇴소 전후 원스톱 일상 교육 지원	4,769	10.5%
5	서울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 청소년 서포터즈 운영	4,154	9.1%

표 15 서울시 2023년 청년자율예산 온라인 대시민투표 상위 5개 사업

-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청년들이 정치적·사회적 참여를 권장하기 위해서는 교육과 체험이 중요한 사항이므로 전주시의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어린이의회를 적극 이용하도록 관내 학교에 홍보하고 어린이의회와 같은 성격의 청소년·청년의회 등의 개설이 필요함

- 또한, 전주시만의 청년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전주시에서 2년 단위로 작성하는 청년통계 작성시 청년들의 의견을 물어보는 VOC(Voice of Customer) 문항을 신설하여 다양한 요구를 확인한 후 실시해야 함

제1장 | 전주시 청년통계 작성 개요

1 청년통계 개념

- ‘청년통계(The Young Statistic)’란 생애주기(life cycle) 중 가장 활력적이고 활동적인 시기인 ‘성년기(만 19~39세)’을 대상으로 국가 및 공공기관의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작성한 통계임.

2 작성목적

- (삶의 질 향상 기여) 생애주기 중 교육, 노동시장 진입 및 유지를 통해 개인의 경제·사회적 삶의 수준과 질을 결정하는 시기인 청년(만 19~39세) 통계를 다차원적으로 생산·분석하여,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

3 작성방법

- 『전주시 청년통계』는 전주시 내부 행정자료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국민건강보험 등 외부 행정기관에서 작성한 통계자료를 수집하여 작성함.
- 전주시 청년통계 개발 모형



그림 13 2022 전주시 청년통계

- 당장 실시할 수 있는 정책으로는 은둔형 외톨이 방지 및 1인가구의 고독함을 달래기 위한 지원 활동이나 청년들이 본인들이 원하는 정책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자율예산제 도입 등이 있음

3. 어린이 도서관의 공간 구성과 활성화 방안

- 전주시 공공도서관 대출자료수를 보면 2020년 코로나 당시 80만권 이하로 떨어졌던 대출 자료 수가 2022년에는 140만 권 이상으로 증가하면서 도서와 학습 등을 위해 도서관을 이용하고 있는 인원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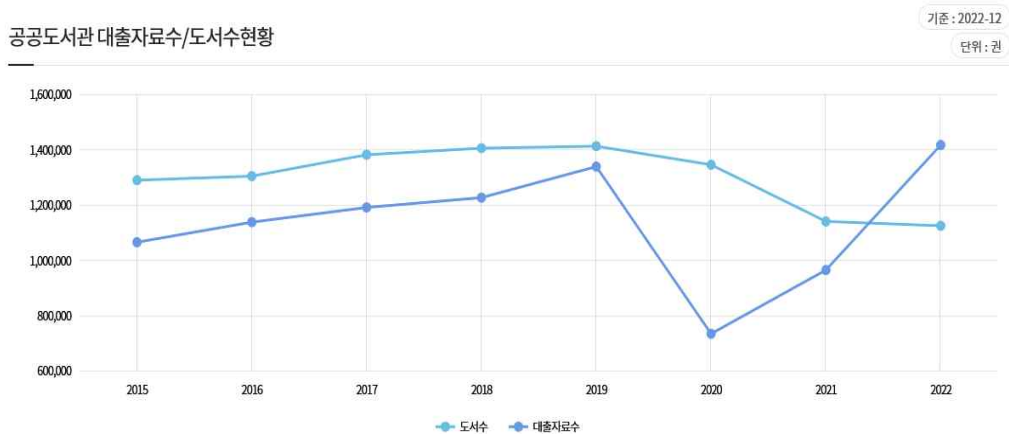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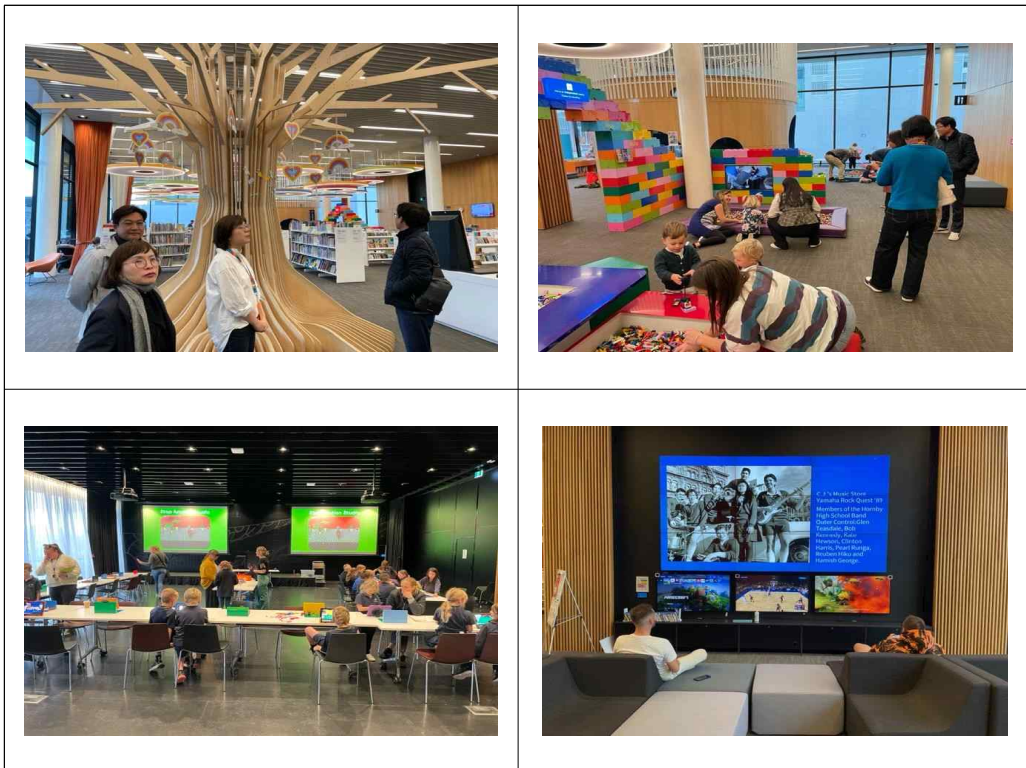


그림 14 전주시 공공도서관 대출자료수/도서수현황 그래프

- 이외에도 도서관은 교육, 문화, 정보의 중심지로서 복합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특히 어린이도서관¹¹⁾은 어린이들에게 풍부한 독서 환경을 제공하여 어린이와 책을 연결시켜주는 역할과 독서 습관을 기르는 데에 도움이 되는 공간임
- 현대의 어린이도서관은 영유아들이 보호자와 함께 방문하게 되면서 점차적으로 가족이 함께하는 장소로 변화하고 있으며, 단순히 어린이에게 책을 제공하고 읽게 하는 장소가 아니라 가족들이 모여 책을 공유하고 생각을 나누는 가족의 장으로서 가정의 연장선상에 존재하는 공공문화시설로 자리잡고 있음

11) 어린이도서관은 1979년에 개관한 서울시립어린이도서관을 시작으로 급격히 증가하여, 2020년 기준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1개관, 공공어린이도서관 83개관, 어린이작은도서관 184개관, 공공도서관 어린이실 1007개관 등이 어린이의 성장을 돕기 위해 다양한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

- 이외에도, 어린이도서관은 다양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며 있는데 특히 독서와 관련된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고 문화적 경험을 제공하는 사회적인 기관으로 어린이들이 다양한 정신적, 정서적 체험을 통해 감성과 상상력을 키우고 어려움에 대처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도와줌
- 이러한 어린이도서관들은 어린이들에게 책을 제공하고 독서를 촉진하는 역할을 하며, 독서 및 문화 활동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도서관을 방문하여 책을 읽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독서 프로그램이나 문화 행사에 참여할 수 있어 어린이들의 창의성과 상상력을 발휘하고 인지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줌
-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 투랑가 도서관을 보면 1층에 어린이들이 직접 체험하고 활동할 수 있는 공간들을 구비하고 이용하고 있음



- 전주시 역시 책의 도시를 비전으로 선포하면서 전주시 내 도서관 대다수를 리모델링 및 신규 개관하여 새로운 관광 자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 그 중, 전주시 대표 도서관인 꽃심도서관 2층은 전체 공간을 청소년만이 이용할 수 있는 ‘1216 우주로’ 공간을 만들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함으로써 공간문화대상 수상 및 청소년 및 학부모 전주시민에게 많은 호응을 받고 있음
- 다만, 뉴질랜드 투랑가 도서관과 전주시의 차이를 보면 뉴질랜드는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들이 부모님과 함께 놀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많이 조성되어 있다는 점과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와의 연계를 통해 수업시간에도 자유롭게 도서관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전주시의 경우 송천동에 작은도서관의 형태로 ‘전주 책마루 어린이 도서관’을 운영 중이며 2022년도에는 전북도 선정 ‘최우수 도서관’에 선정되는 등 활발히 운영되고 있음
- 다만, 1개의 도서관만을 어린이 도서관으로 운영하고 있어 다소 거리가 있는 전주시민에게는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기에 어린이 누구나 접근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전주시 도서관 내 어린이 체험 공간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전주시의 도서관 중 어린이 특화도서관을 내세우며 재개관한 도서관이 증가하고 있으나, 공간 구성을 살펴보면 체험하며 놀 수 있는 공간보다는 단순히 유아 특성을 고려한 낮은 책장 등의 환경적 요인만 고려하여 운영되고 있음
- 또한, 어린이 도서관 프로그램을 살펴보아도 대부분 북스타트, 그림책 활동, 만들기 활동, 작가와의 만남 등을 중심으로 유아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으나, 뉴질랜드의 경

우 유아의 발달 단계에 맞춰 책, 음악, 춤, 놀이, 장난감 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음

- 또한, 육아를 하는 부모들을 위한 모임의 장소를 제공하며 필요한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특징이며, 특히 장애아를 둔 가정을 위한 정보 자료와 장애아용 장난감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도 운영되고 있음
- 어린이도서관의 궁극적인 목표는 어린이들이 다양한 사회 문화적 경험을 쌓으며 도서관을 이용하는 즐거움을 느끼고, 평생교육의 장으로서 계속해서 도서관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므로 어린이들의 흥미와 성장을 지원하고 평생 학습의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중요함
- 따라서, 전주시 도서관에서도 이러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도입하고 운영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전주시 내에 있는 각종 어린이 교육기관과의 협조 등을 통해 어린이들이 매일 매일 가고 싶은 장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4. 지역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액티비티 다양화 전략

- 현재 지역 제조업의 부진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성장 잠재력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관광산업은 고용 창출 효과가 높아 저성장 시대의 성장 동력으로 부각되고 있음
- 이에 따라 지역은 관광 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집객을 위한 시설투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출렁다리, 케이블카, 짚라인 등의 시설이 대표적인 예시임

※ 전주시 역시 민선8기 공약으로 문화관광도시 위상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2000만 관광객 시대를 열기 위한 기반으로 한옥마을케이블카 설치 예정임

※ 한옥마을~기린봉~아중호수~아중역 인근 행치봉 구간 2.7km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시비 500억 원 가량의 예산이 들 것으로 전망

- 그러나 이러한 투자는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고 전국 각지에서 유사한 시설들이 중복으로 생겨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 중복투자 우려의 목소리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음
-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최근 전국의 지자체들은 루지를 새로운 집객 시설로 주목하고 있으며, 루지¹²⁾에 대한 지자체들의 관심이 높은 상황임
- 지자체가 관심을 보이고 있는 루지는 눈썰매를 타듯이 바퀴가 달린 카트에 탑승해서 발을 올리고, 핸들과 브레이크 조작으로 경사면을 타고 내려가는 사계절용 액티비티로 특별한 동력

12) 루지(Luge)란 스위스-프랑스어로 '썰매'라는 뜻이며 동계 스포츠의 3대 썰매 종목(봅슬레이, 스켈레톤, 루지) 중 하나로, 스위스와 오스트리아 같은 알프스 산맥의 썰매놀이에서 유래하였다. 동계올림픽 경기 종목 중 하나인 루지는 썰매를 타고 약 1,000미터의 얼음 코스를 활주하여 시간을 겨루는 스포츠를 뜻한다.

장치 없이도 중력과 땅의 경사만을 이용해 트랙을 달리는 놀이시설로 직접 방향과 속도를 조절할 수 있어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관광용 루지는 처음으로 뉴질랜드의 로토루아(Rotorua)에서 발명되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스카이라인 루지¹³⁾가 처음으로 개발되어 2017년에 통영에서 개장함
- 국내에서는 2017년 3월에 준공된 통영 스카이라인 루지를 시작으로, 2020년 기준 국내 총 9개소의 루지가 운영되고 있음

[국내 루지 운영 현황]



구분	지역	시설명	개장시기 (예정)	길이(km)	기타
1	통영	스카이라인 루지	2017. 02	1.5 / 0.6	2020년까지 4개트랙 추가 예정
2	충천	비발디파크 루지월드	2017. 07	0.9	봄, 여름, 가을 운영
3	강화도	씨사이드 리조트	2018. 06	1.8	2020년 스키장 완공
4	양산	에덴밸리	2018. 07	0.5 / 2.1	
5	명창	용평리조트 루지코리아 용평루지	2018. 07	1.5	봄, 여름, 가을 운영
6	증평	블랙스톤 벨포레 리조트 익스트림 루지	2019. 06	1.5 / 1.4	예뉘팜 특구 관광단지
7	평창	휘닉스파크 루지랜드	2019. 07	1.4	봄, 여름, 가을 운영
8	여수	유월드 루지 테마파크	2019. 07	1.3	
9	함천	함천국보테마파크 루지체험장	2019. 09	1	
10	횡성	국도 42호선	(2020. 08)	2.4	폐 국도 활용
11	정선	강원랜드하이원루지	(2020. 10)	1.9	
12	부산	동부산 관광단지	(2021. 05)	약 0.9, 4개	
13	진도	루지테마파크	(2021. 10)	2.8	
14	경주	경주 보문단지 루지월드	(2021. 06)	2.7	
15	함평	사포관광지	(2024)	1.1 / 1.2	

그림 19 국내 루지 운영 현황

13) 스카이라인 루지는 가장 유명한 루지 회사로, 1985년에 설립된 뉴질랜드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뉴질랜드, 싱가포르, 캐나다 등 5개 지역에서 루지를 운영 중에 있음

▶ 국내 운영 중인 루지시설 현황

지역	시설명	내용	이미지
통영	스카이라인 루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장일 : 2017. 02 • 길 이 : 1.5km / 0.6km • '20년까지 트랙 4개 추가예정 • 국내 최초의 루지 • 2017년 개장 첫해 190만회 이상의 탑승기록 • 2019년 11월 500만 돌파 • 세계유일 360도 회전코스 • 2019-20년 한국관광 100선 단일놀이기구시설로 유일 • 통영케이블카와 연계할인 	 
홍천	비발디파크 루지월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장일 : 2017. 07 • 길 이 : 0.9km • 봄, 여름, 가을 운영 • 최초 스키장 슬로프활용 루지 • 국내기술 포함한 루지 	
강화	씨사이드 리조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장일 : 2018. 06 • 길 이 : 1.8km • 아시아 최대의 루지 • 출발점까지 곤돌라 이용 	
양산	에덴벨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장일 : 2018. 07 • 길 이 : 2.2km • 양산 에덴벨리리조트 내 2만7251㎡ 부지에 조성 • 기존 스키장 슬로프 활용 • 봄, 여름, 가을 운영 • 세계 최장 루지 • 3개 코스로 구성 	 

지역	시설명	내용	이미지
평창	루지 코리아 용평루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장일 : 2018. 07 • 길 이 : 2.2km • 기존 스키장 슬로프 활용 • 봄, 여름, 가을 운영 • 설치에서부터 운영까지 순수 국내기술로 개발 • 트랙 중간 중간 트랙아드 • 바람개비길 등 다양한 테마 	  
중평	익스트림 루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장일 : 2019. 06 • 길 이 : 1.5 / 1.4 km • 루지 외 썰매장, 골프장, 마리나, 요트, 제트보드 등의 레포츠시설과 함께 운영되는 복합시설내 조성 	
평창	휘닉스 파크 루지랜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장일 : 2019. 07 • 길 이 : 1.4 km • 봄, 여름, 가을 운영 • 기존 스키 슬로프 활용 • 정상에 대규모 해바라기 꽃밭 	
여수	유월드 루지 테마파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장일 : 2019. 07 • 길 이 : 1.3 km • 쥘라기어드벤처, 다이노밸리, 유심천운전, 골프연습장등으로 구성된 테마파크 내 조성 	
합천	국보 테마파크 루지 체형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장일 : 2019. 09 • 길 이 : 1.0 km • 겨울시즌 눈썰매장과 함께 운영 	

- 루지가 국내에서 단기간에 주목받은 이유 중 하나는 개발 및 공사 기간이 짧아 다른 시설들에 비해 비교적 간단하게 진행됨



그림 20 루지시설 개발 과정(참고 : 루지코리아 홈페이지)

- 지자체에서 루지에 관심을 가지게 된 첫 번째 이유는 국내외 액티비티 시장의 성장으로, 2019년 말 에어비앤비의 발표에 따르면 국내 스포츠 액티비티 프로그램의 예약 건수가 2018년과 비교해 48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국 예약자 수도 2018년 대비 741% 급증하여 전세계 시장에서 1위를 기록함
- 이러한 성장세에 발맞춰 2018년부터 여기어때, 야놀자, 와그, 프리프, 에어비앤비 등 다양한 액티비티 플랫폼들이 등장하면서 높은 성장률을 보였고, 2019년 기준 국내 액티비티의 시장 규모가 약 20조원으로 매년 7% 이상의 성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음
- 이러한 액티비티 시장의 성장은 개인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다양한 체험과 활동을 찾고, 새로운 경험을 즐기려는 경향이 반영된 결과로 루지는 그 특별한 액티비티 중 하나로서 썰매를 타듯이 바퀴가 달린 카트에 탑승하여 경사면을 내려오는 재미 있는 체험을 제공함
- 단, 액티비티 개발에 투자할 때 자본의 효율성과 수익성을 신중하게 고려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기에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수익 모델의 다양화, 협약 조건의 재검토/재협상, 시

- 설의 홍보와 마케팅의 전략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사항들을 고려하여 전주시의 지역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한옥마을 케이블카 설치와 더불어 전주시의 전경이 보이며 루지 체험 후 새로운 장소로의 관광이 가능하도록 연계성을 높인다면 전주시의 새로운 관광장소로 거듭날 수 있음

5. 전주시의 생태관광과 체류형 관광객 유치를 위한 등산 및 걷기 코스 개발

- 산림청에서 실시한 2022년도 등산 등 숲길체험 국민의식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성인 남녀 중 한 달에 1번 이상 등산/숲길체험을 실시하는 인구는 3,229만명으로 전체 성인 남녀의 78%에 해당함



그림 21 2022년도 등산 등 숲길체험 국민의식 실태조사 결과(산림청)

-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2018년부터 실시하는 ‘걷기여행 실태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걷기여행 경험 비율이 높아지고 있으며, 청년층의 참여율이 상승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이처럼 등산 및 걷기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자연을 활용한 등산 및 걷는 코스를 개발한다면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음
- 뉴질랜드는 야생의 해안에서부터 농지, 강 계곡, 나무들이 울창한 숲, 익스트림한 산악지형까지 굽이굽이 트레일들이 이어져 있어 하이킹을 즐겨하는 여행자들의 낙원으로 유명하며,

- 국립공원 및 각종 지역을 가로지르는 다양한 트랙이 있음
- 독특하고 다양한 생태계를 여유롭게 관찰하며 자연을 편히 즐길 수 있도록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쉬운 코스부터 자연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대자연을 수일 동안의 모험을 통해 경험하는 코스 등 다양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트랙이 마련돼 있음
 - 전라북도 역시 뉴질랜드 유사하게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소멸 위기 대응하고자 차별화된 체류형 생태관광 조성을 위해 2027년까지 기존의 천리길¹⁴⁾과 생태관광자원을 연계한 1,200킬로미터의 탐방로 규모의 에코캠핑 삼천리길 사업을 추진 중에 있음
 - 이 프로젝트에서는 캠핑장 조성, 주민 소득 창출 기반의 구축,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체류형 생태관광을 육성하고 지역사회의 경제적인 발전과 주민들의 소득 창출을 지원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음
 - 이처럼 등산 및 걷는 코스를 개발하여 생태관광과 체류형 관광객을 유치하려는 움직임이 전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전주시는 특정 거점(한옥마을, 아중저수지, 덕진공원 등)이 도보로 이동하기에는 멀리 위치했으며 도보를 걷는다고 해도 도시 위주의 풍경으로 인해 시민들이 보고 즐길거리가 부족한 실정임
 - 그렇기에 다양한 등산 및 걷기 코스들을 개발한다면 전주시의 새로운 관광코스로 자리매김할 수 있으며 체류형 관광객들을 유인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됨
 - 특히, 완주-전주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관광객들

14) 전주시의 경우 한옥마을 둘레길, 천년 전주 마실길, 건지산길 3곳이 해당함

을 위한 인프라가 잘 구축된 전주와 생태가 잘 보존된 완주와의 협력을 통해 코스들을 개발하고 구축 및 정비해간다면 양도시 간 이득이 발생하여 상생할 수 있음

- 등산 및 걷기 코스들을 개발할 때는 일종의 테마를 바탕으로 수립하면 도움이 되는데 이를테면, 사계절을 이용하여 봄·여름·가을·겨울이 아름다운 장소들을 발견하여 코스를 만든다면 매년 새로운 전주를 만나기 위해 관광객들이 지속적인 방문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 구체적으로는 전주시 코스모스 명소로 알려진 ‘전주시 양묘장’을 일환으로 두리봉, 응봉산, 묵방산, 상관저수지를 활용한 등산 및 트레킹 코스로 개발 가능함
- 또한, 기린봉과 치명자산 성지는 전주시민에게는 일몰과 야경이 아름다운 산으로 사랑받고 있기에 야간에 걷기 적합한 평탄한 길을 바탕으로 가로등 및 조명이 길을 밝힐 수 있도록 조성하는 방법 등이 있음
- 이외에도, 전주시는 ‘도시공원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국에서 최초로 제정한 바 있기에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해 완산칠봉꽃동산과 같이 숲으로 둘러싸인 장소를 중심으로 맨발길, 황톳길을 조성한다면 새로운 관광지로 부상할 수 있음

전주시 도시공원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건강증진에 효과가 있는 맨발걷기를 활성화하고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으로 목적으로 한다.

6. 전주시의회 국제교류협력 활동 강화

- 21세기에는 거버넌스 패러다임이 확산되면서 정부, 시장, 시민사회 등이 서로 협력하고 파트너십을 형성하여 공동으로 대처하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국제 교류도 다양한 형태와 양상이 증가하고 있음
- 이와 더불어, 전 세계의 세계화 및 지방 자치 강화로 인한 지방화 시대가 전개되면서 지방의회의원들이 지역을 대표하여 지방차원의 공공외교 활동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국제 교류는 인종, 종교, 언어, 이념 등을 초월하여 다양한 주체들이 우호 협력과 나라별 이해 증진 및 공동 이익 도모를 목적으로 공식적이거나 비공식적으로 추진하는 상생적 협력 관계를 의미함
- 국제교류협력은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유익하고 의미 있는 가치를 창출하는 발전전략으로 인식되어, 지방자치단체도 국제 교류를 통해 공동 관심사와 국제 기준에 대한 인식을 확대하고, 법률·제도·행정 서비스·산업 활동에 대한 이해도를 향상시키며, 협력과 이해 증진을 통해 지역 개발 및 협력 사업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활동임
- 또한, 국제교류협력 활동을 통해 다양한 아이디어, 정보, 우수 사례를 수집하여 행정 선진화와 경제 활성화를 위한 역량을 강화 및 시민들의 생활문화와 교육의 질 향상에 기여하며 국제적인 친선과 신뢰 관계를 증진시키고 시민 개인의 국제화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음

- 전주시의회는 앞선 4월에 ‘전주시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해 지방의회 차원에서의 교류협력을 강화하고자 하였음

전주시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의 교류협력을 통하여 의회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창의적인 혁신을 도모하는 등 지방자치의 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이번 공무국외연수 간에도 오클랜드 한인회장, 쿠메우 필름 스튜디오 대표, 오클랜드 부시장, 호비튼 무비 세트 이사, 재외동포 국회의원, 투랑가 도서관 관장, 뉴질랜드 한인 생활체육회장을 만나면서 전주시의 국제적인 행사인 전주 세계 시니어 배드민턴 대회를 홍보하고 전주시의 대표 韓 문화인 한옥, 한복, 한식 등을 홍보하며 전주시로의 방문을 약속하는 등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하였음







- 이러한 민간·기업·단체·기관과의 우호협력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관계를 돈독히 한다면 나중에는 전주시의 특산품 등을 판매할 수 있는 통로가 개척되어 지역 경제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음
- 이외에도, 전주시가 도서관에 기증한 도서를 통해 자연스레 전주시를 홍보함으로써 전주시의 위상을 높이고 외국인 관광객의 방문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음
- 그렇기에, 전주시의회에서는 국제교류협력 활동을 증진시키기 위해 우호도시, 자매도시 체결을 위해 보다 다양한 국제적인 활동을 시도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서는 국제교류협력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를 명확히 설정하여 장기적인 계획 수립과 이를 전담할 전문적인 기관의 설립이 요구됨

IV. 의원 개별 연수보고서

송영진 의원

지역의 자원과 문화를 활용한 관광산업 활성화 방안 모색

□ 출장개요

- 일 시 : 2023. 5. 20.(토) ~ 2023. 5. 29.(월)
- 방문국가 : 뉴질랜드
- 방문목적
 - 뉴질랜드의 주요 산업인 영화 세트장을 활용한 영화·영상 산업 및 자연을 활용한 생태관광 산업에 대한 시찰 및 간담회 등 추진을 통해 전주시 경제 활성화 및 관련 산업 진흥에 연계
 - 도서관 선진도시로서 해외 공공도서관의 기능과 역할 시찰 및 간담을 통한 전주시 도입 과제 모색 및 재외 동포 교류 활성화를 통한 협력관계 모색
 - 2023 전주세계시니어배드민턴선수권대회 홍보
- 작 성 자 : 송 영 진

□ 현 황

- 전주는 국제영화제의 도시이자 촬영의 메카
 - 전주시는 ‘전주국제영화제’가 개최되는 도시이자, 영화 제작소 운영 및 각종 영화·드라마 촬영지가 있는 도시로

영상 촬영 분야 활성화 및 관광 자원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로 연계되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음.

- 한국 영화의 새 역사를 쓴 ‘기생충’ 이 탄생하기까지는 영화도시의 전주가 있었음(약 60%에 가까운 분량 촬영).
- 영화 기생충을 마중물로 현재 드라마 촬영지(스물다섯 스물하나, 그 해 우리는, 소년심판 등)로도 등장하여 촬영의 메카로 각광을 받고 있어 이에 대한 확장 및 일자리 창출로의 연계가 필요함.

○ **한옥마을 중심에서 벗어나 관광 다변화 노력이 필요한 시점**

- 전주시는 한옥마을을 중심으로 한 관광자원은 풍부하나 바다나 강 등의 자연자원의 부족이 관광의 확장성 측면에서 아쉬운 부분이기도 함.
- 하지만 전주시에도 기지제나 세병호, 아중 저수지, 수목원, 건지산 등 생태관광으로 연계시킬 수 있는 요소가 많이 있으며, 이러한 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생태 관광 체험 등을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관광의 다변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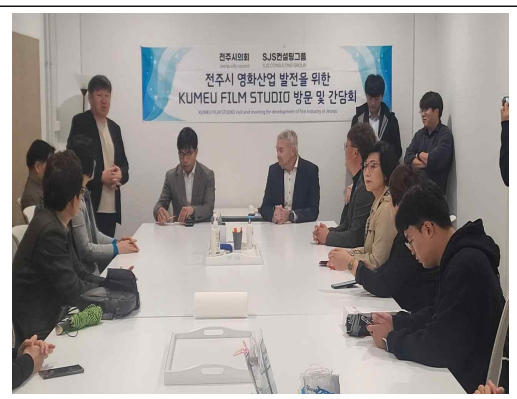
○ **적극적 협력관계 모색을 통한 전주시 홍보 등 필요**

- 해외 여러 지역과의 교류 및 재외동포(한인회, 한인 체육회 등)와의 교류를 통해 국제대회 홍보 및 참여 등 협조를 독려하고,
- 업무협약 체결 등을 통한 협력 관계 구축과 더불어 전주시 홍보에 더욱 적극적·다각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음.

□ 출장 세부내용

○ 쿠메우 필름 스튜디오(KUMEU FILM STUDIO)

- 관광자원으로서의 영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영상 촬영 스튜디오 역할 논의
- 지역 인프라 활용,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연계 방안 논의
- 전주시와 쿠메우 필름 스튜디오 자문 등 협력관계 구축 논의



○ 반지의제왕 영화 촬영장 방문 및 간담회

- 영화 세트장을 활용한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 효과 파악
- 많은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지자체 역할 논의
- 영화산업을 지역의 주력산업으로 선정하게 된 계기 및 관련 정책 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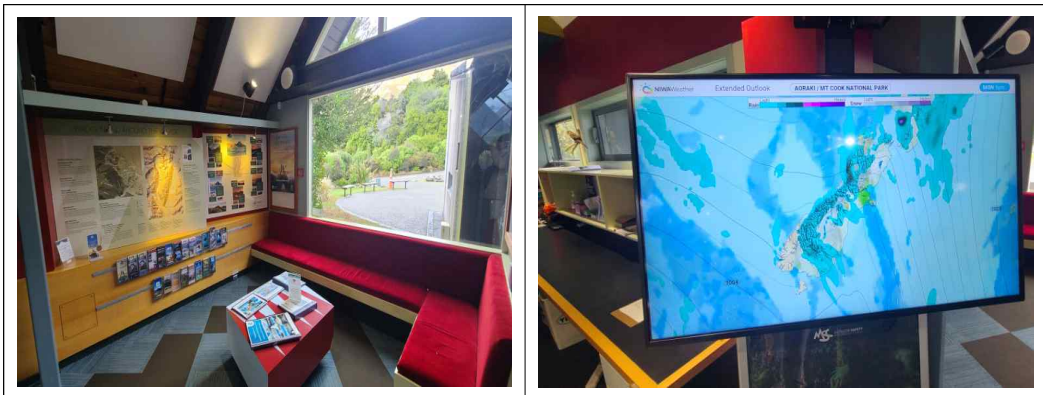
○ 로토루아 지역 생태관광 산업 선진지 방문

- 자연을 활용한 생태관광 산업화 방안 논의
- 자연을 훼손 없이 설치한 곤돌라, 루지, 쥘라인, 산악자전거 체험 등을 활용한 관광 영역의 확장 및 활성화 방안 학습
- 전통문화와 관광산업 연계, 문화를 계승하면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방법 모색



○ 아오라키 마운트쿡 국립공원 방문자 센터 및 트레킹

- 쇼핑, 박물관, 회의실 공간을 결합한 뉴질랜드의 지역 관광 안내소 및 트레킹 관광 학습
- 자연 훼손 최소화를 위한 트레킹 코스 주변 상업시설 설치 제한 사례 등 학습



- 오클랜드 한인회 간담회 및 부시장 간담회, 청사 방문
 - 재외동포와의 교류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및 도서 기증식
 - 지속적 협력관계 구축 및 홍보를 위한 전주시 한스타일 홍보 공간 구축 협약
 - 시청사 이전에 따른 공간 활용 방안 학습, 협력체계 구축
- Melissa Lee 간담회, 크라이스트처치 투랑가 도서관 방문
 - 사회 및 정치에 어려서부터 참여 가능한 방안 논의
 - 뉴질랜드 정부-전주시의 지속적 교류 협력 활동 협의
 - 시민들의 복합문화공간으로서 공공도서관의 기능과 역할 모색



오클랜드 한인회 간담회



오클랜드 부시장 간담회 및 청사 방문



Melissa Lee 간담회 및 투랑가 도서관

○ 뉴질랜드 한인 생활체육회 방문

- 2023 전주 세계 시니어 배드민턴 선수권 대회 공동 홍보 및 대회 참가 유치를 위한 활동 협약
- 생활체육 활동을 통한 이민자들의 현지 정착 도움 방안 논의
- 쇼핑, 박스포츠관광 활성화를 위한 생활체육의 역할과 뉴질랜드 청소년 스포츠 정책 학습



□ 연구과제 및 주요현황(상황)

연구과제 ①

영화·영상 산업을 통한 신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 쿠메우 필름 스튜디오(KUMEU FILM STUDIO)

- 쿠메우 필름 스튜디오는 전문적인 촬영 스튜디오로 철저한 보안 및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민간인 신분으로는 전주시의회의 방문이 최초 사례임
-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수조, 영구 스크린월, 창고무대, 사운드 스테이지 및 3만 6천 평의 숲 규모를 자랑하는 스튜디오로 6개의 팀이 동시에 촬영이 가능하며, 향후 10년 간 예약이 이미 차 있는 상태

- 뉴질랜드 인구의 약 8.6%가 스튜디오 산업에 종사하여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음
- 또한 영화제작 기금을 통해 뉴질랜드 현지에서 촬영할 경우 제작비의 20%를 보조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할리우드를 비롯 대형 영화 촬영 유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기도 함.
- 쿠메우 스튜디오와 상호 장소 협조 및 자문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논의 진행
- 지역 내 대학 스크린 산업 관련 학과가 있는데 이러한 전주시가 가진 인프라를 활용하여 고용을 창출하고, 전주영화제작소를 어떻게 지역 내 대학교에 영화영상 관련 학과가 있는데 이러한 전주시가 가진 인프라를 활용하여 고용을 창출하고, 전주영화제작소를 어떻게 활성화시키고 확장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의 필요성

○ 호비튼 영화 세트장(반지의 제왕)

- 영화 반지의 제왕으로 유명한 호비튼 영화 세트장은 매년 65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관광지임. 반지의 제왕은 현재까지도 판타지 영화 마니아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으며, 반지의 제왕 팬이라면 뉴질랜드에서 꼭 가야 할 여행지로 손꼽히고 있음.
- 호비튼 투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호비튼 세트장을 통해 393개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약 619억 원 정도의 경제효과를 유발하고 있음.

연구과제 ② 생태관광으로의 관광 다변화 방안 모색

○ 로토루아 지역 생태관광 산업 선진지 견학

- 자연과 관광산업의 융합,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지 않더라도 자연을 활용하여 생태관광 자원으로 활용하고 있음.
- 뉴질랜드는 청정 자연으로 유명한 곳으로, 뉴질랜드에 있어 자연이란 나라의 정체성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점에서 전주와 직접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나, 전주시가 가진 다양한 자연, 호수 등의 자원을 활용한 관광 영역 확장이 필요한 시기인 만큼 생태관광에 대한 사례 탐구가 필요하며,
- 특히 자연 환경 훼손을 최소화 하여 설치한 곤돌라, 루지, 쥘라인 및 산악자전거 체험 등은 전주에서도 아중호수 케이블카 논의가 되었던만큼 참고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아오라키 마운트쿡 국립공원 방문자 센터 및 트레일

- 자연의 아름다움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곳으로 뉴질랜드에서 가장 높은 산을 활용하여 관광객들이 찾는 트레킹 코스로 발전시켰음.
- 자연 훼손을 최소화 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트레킹 주변에는 상업시설 설치를 제한한 사례를 볼 수 있었음.
- 아오라키는 마오리족들이 마운트쿡을 부르는 이름
- 마운트쿡 국립공원 방문자센터에서는 트레킹 코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방문객들이 각종 지도와 안내책을 구입할 수 있고, 슬라이드 상영 등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음.

기타과제 - 교류협력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대회 홍보 등

- 오클랜드 한인회 및 뉴질랜드 생활체육회, 오클랜드 부시장 및 국회의원 Melissa Lee 간담회, 도서관 방문 및 간담회 등을 통한 교류협력 확대 논의

□ 활용방안 및 도입과제

○ KUMEU STUDIO ASIA 유치 방안 모색

- 뉴질랜드의 경우 영화 및 영상 산업이 지역의 신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매우 큰 역할을 하고 있었음.
- 쿠메우 스튜디오는 향후 10년 정도 촬영 스케줄이 이미 확정된 상황으로 아시아 지부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있는 상황임.
- 영화 제작은 엄청난 인원이 장기간 동안 해당 스튜디오에 상주하며 작업을 해야하는 과정이므로 전주시가 유치만 하게 된다면 세계 각지의 촬영팀이 입주하여 촬영을 추진함으로써 전주시 홍보는 물론, 해외 자본 유치 및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 다방면으로 연계가 되는 산업임.
- 이번 공무국외출장을 통해 뉴질랜드 최대 영화 스튜디오인 쿠메우 스튜디오와의 우호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하였고,
- 전주시의 경우 전주영화제작소에서 다양한 영화 촬영을 지원하고 있고, 특히 2025년까지 약 238억 원을 들여 K-film 제작 기반 및 영상 산업 허브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임.

- 또한 지역 대학에서 관련 전공생들을 배출하고 있어 지역일자리 창출은 물론 제작사의 수요 충족도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음.
- 따라서 전주시가 가진 자원과 여러 장점을 바탕으로 쿠메우 스튜디오의 아시아 지부 유치에 전주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필요성이 있음.

○ 세트장 및 촬영지 활용을 통한 관광객 유치 방안 모색

- 전주에서도 다양한 영화와 드라마가 촬영되었고, 특히 기생충 이래 전주는 영화 제작을 위한 명소로 손꼽히며 현재도 다양한 영상물이 제작되고 있으나, 뉴질랜드 호비튼 촬영장 투어 프로그램과 같이 관광으로 연계되지 못한다는 아쉬움이 있음.
- 물론 세트장의 경우 영화나 드라마의 흥행을 개봉·방영 이전에 확신할 수 없다는 점, 개봉·방영 이전에 세트장을 외부에 유출할 수 없다는 점, 세트장 규모가 크다보니 추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 대비하기에 무리가 따른다는 점 등 다양한 어려움이 있음.
- 하지만 세트장 복원 또는 촬영지 등을 연계하여 관련 거리를 조성한다거나, 관광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함으로써 외부 관광객들이 지속적으로 방문할 수 있는 콘텐츠를 제공한다면 관광 콘텐츠 확보 및 전주시가 영화의 도시로서 각인되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할 것이므로 보다 적극적으로 세트장 및 촬영지를 활용하여 관광과 연계시킬 필요성이 있음.

○ 생태관광으로의 전주시 외연 확장 방안 모색

- 자연 훼손을 최소화 하는 선에서 전주시가 가진 세병호,

기지제, 아중호수, 건지산 등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여 생태관광, 에코투어리즘이 가능한 도시로 전주시 관광의 외연을 확장할 필요가 있음.

- 한옥마을의 관광 콘텐츠에만 언제까지 의존할 수는 없는 상황이므로, 생태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음.
- 다만 전주시의 경우 청정자연으로 손꼽히는 뉴질랜드 처럼 천혜의 자연환경으로 관광객을 유인하는 데는 우리가 따를 것이므로 자연 환경을 존중하고 보호하면서 관광객들이 자연을 체험하고 배울 수 있는 활동 등의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구성하여 기타 관광자원과 연계하는 것이 중요할 것임.
- 또한 생태관광에 있어 자연을 잘 보전하여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도 무척 중요하지만 지역 주민들의 소득과 연결될 수 있는 지점을 찾아내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한 과제일 것임.
- 그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의 참여와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생태관광을 준비하고 시행하는 데 있어 전주시가 지역 주민들과 지속하여 소통하고 주민들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장기적으로는 주민들이 자생적으로 운영해나갈 수 있도록 양성 방안 마련도 중요할 것으로 판단됨.
- 주민들이 주도하여 자연을 보전하고 관리함으로써 지역에 적합한 프로그램과 먹거리를 발굴하여 소득으로 연결되는 일련의 과정을 경험하여 생태관광이 자연스레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주민 주도형 생태관광이 앞으로 전주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 생각함.

전주시 도서관 복합문화공간으로의 진화를 향한 활용과 도전

□ 출장개요

- 일 시 : 2023. 05. 20.(토) ~ 2023. 05. 29.(월)
- 방문국가 : 뉴질랜드
- 방문목적
 - 뉴질랜드의 주요 산업인 영화 세트장을 활용한 영화·영상 산업 및 자연을 활용한 생태관광 산업에 대한 시찰 및 간담회 등 추진을 통해 전주시 경제 활성화 및 관련 산업 진흥에 연계
 - 도서관 선진도시로서 해외 공공도서관의 기능과 역할 시찰 및 간담을 통한 전주시 도입 과제 모색 및 재외 동포 교류 활성화를 통한 협력관계 모색
 - 2023 전주세계시니어배드민턴선수권대회 홍보
- 작성자 : 정 심 길

□ 현 황

- 전주시는 2017년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는 대한민국 독서대전 개최지로 선정되면서 대한민국 책의 도시 상징기를 전수받은 이래 전주시 내 도서관을 리모델링 및 신축을 통해 시민들의 접근을 용이하게 만들었으며,

복합공간으로서의 활용을 도모하고 있음

- 또한, 도서관을 여행지로 삼아 시민들에게 독서와 도서관 이용의 중요성을 전하는 정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매주 토요일에 도서관 여행을 개최하여 시민들이 여행하는 동안 독서와 휴식을 즐길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전국에서 많은 여행자들이 참여하고 있음
- 전주 도서관 여행은 주제에 따라 다양한 코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의 관광자원으로서의 가치를 입증하고 있음
- 이러한 도서관 관련 관광에 있어 전주시는 독보적인 인프라와 콘텐츠를 갖추기 위해 계속해서 정책을 발전시키고 협력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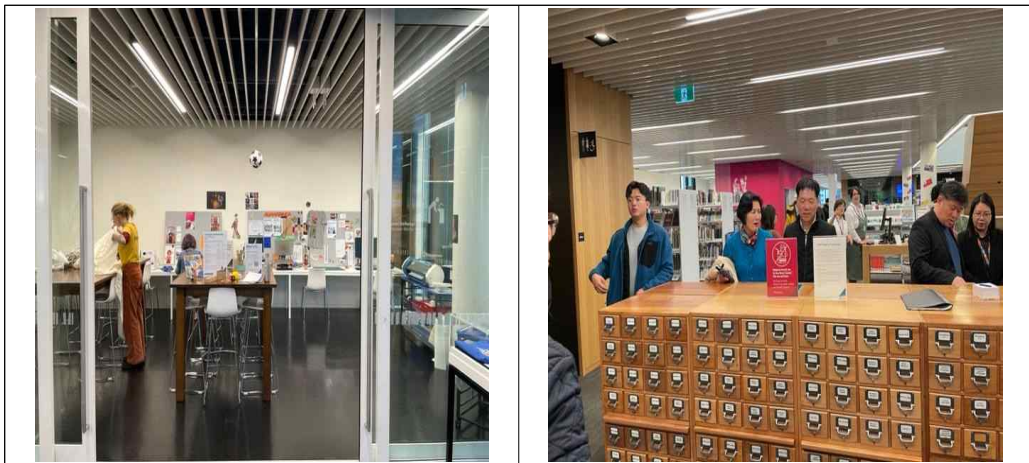
□ 출장 세부내용

- 전주시의 도서관은 주로 도서관 여행, 도서관 체험 등의 관광화를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어, 도서관의 주요 기능인 독서 활성화를 통한 인문학적 소양 증진 및 교육과의 연계 등이 비교적 논의 되지 않고 있음
- 이에 반해, 뉴질랜드는 교과서가 없는 대신 독서를 매우 중요시하여 수업 시간에도 도서관을 방문하여 책을 읽는 등 독서를 통한 교육을 생활화 시키고 있으며, 한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의 도서관에는 한국 책들이 많이 비치하는 등 외국인 거주민을 위한 배려하는 정책을 실시하면서 외국인 거주민들이 자연스럽게 도서관을 방문하게 되어 각종 프로그램을 홍보함으로써 프로그램 참여율을 높이고 외국인 거주민들의 의견을 공론화를 만드는 장소의 기능을 하고 있음

- 그 중, 크라이스트처치 투랑가 도서관은 어린이들을 위한 교육자료를 구비하고 다양한 시설들이 집적화되어 놀이, 교육, 회의 등 다양한 콘텐츠 실현이 가능하며, 지난 크라이스트처치 대지진으로 인해 도서관 설계에 있어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였음
- 현재 전주시는 ‘책의 도시’로서 도서관을 활용한 국내 최고의 도시라고 할 수 있지만, 도서관을 어린이들의 교육기관로서 도서관의 역할과 기능을 활용하고 있는 뉴질랜드의 사례를 벤치마킹하고자 함

□ 연구과제 및 주요현황(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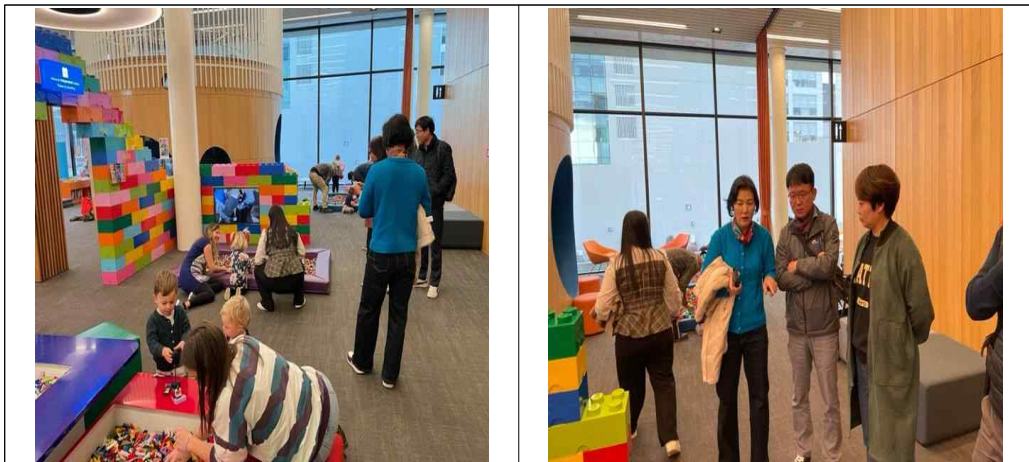
- 투랑가 도서관 내부에는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창업 공간이 마련되어 있어 소규모 작품을 만들어 도서관 내에서 판매와 전시를 진행하고 있음
- 또한, 투랑가 도서관 내에는 과거와 현대를 아우르고 있는데 특히 과거의 기록들을 유지하려는 노력들이 엿보이고 있는데 아래의 사진을 보면 서랍 케이스 내에 도서 대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종이들이 작성되어 있는데 조부모-부모-아들까지로 이어지면서 도서관을 방문한 시민들의 발자취를 모아 두었음



- 이외에도 도서 자동 분류기를 설치하여 사서들이 바코드별로 도서를 분류하는 불필요한 작업을 줄였으며, 도서관 내 7m 규모의 스크린을 설치하여 시민들이 제출한 사진들을 하나의 기록처럼 모아 영상으로 송출하기도 하며, 게임기를 일부 설치하여 도서관을 방문하는 아이 또는 학생들의 흥미를 유도하고 있음



- 그리고 1층에는 어린이들이 부모님과 함께 놀 수 있도록 레고를 할 수 있는 공간을 구비하여 많은 시민들이 도서관을 놀이방처럼 이용하고 있었으며, 옆으로는 카페를 만들어 운영하면서 도서관의 기능이 단지 도서와 공부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었음



□ 활용방안 및 도입과제

- 도서관 내에서 독서와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민들의 인문학적 소양 증진과 교육에 대한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도서관 이용 시민들을 중심으로 한 독서 토론회, 작가 초청 강연, 문학 작품 분석 교육 등 전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독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음
- 2020년 전주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수는 15,348명으로 그 수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므로 외국인 거주자들에 대한 정책으로 외국 도서 보유량을 늘리며 외국인 거주자가 참여할 수 있는 한국 문화와 문학에 대한 프로그램을 개최하여 외국인들이 도서관을 자연스럽게 방문하고 독서와 교류를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해야함
- 또한, 도서관 내 회의공간을 일부 줄이더라도 일부 시민들이 창업 및 전시 공간 등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별도로 마련하거나 도서관 내의 스크린을 활용하여 시민들이 제출한 사진이나 영상을 전시함으로써 본인들의 기록을 남기고 게임기 등을 설치하여 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공간 마련이 필요함
- 끝으로, 도서관 내에 어린이를 위한 교육 자료와 놀이 공간을 강화하고자 레고나 다양한 장난감을 활용한 놀이 공간을 마련하여 어린이와 부모가 함께 놀 수 있는 환경 조성과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독서 이벤트나 문학 활동을 개최하여 독서와 놀이를 융합한 프로그램 운영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함

행정재산 이전에 따른 빈 공간 활용방안

□ 출장개요

- 일 시 : 2023. 05. 20.(토) ~ 2023. 05. 29.(월)
- 방문국가 : 뉴질랜드
- 방문목적
 - 뉴질랜드의 주요 산업인 영화 세트장을 활용한 영화·영상 산업 및 자연을 활용한 생태관광 산업에 대한 시찰 및 간담회 등 추진을 통해 전주시 경제 활성화 및 관련 산업 진흥에 연계
 - 도서관 선진도시로서 해외 공공도서관의 기능과 역할 시찰 및 간담을 통한 전주시 도입 과제 모색 및 재외 동포 교류 활성화를 통한 협력관계 모색
 - 2023 전주세계시니어배드민턴선수권대회 홍보
- 작성자 : 최 명 권

□ 현 황

- 요즘 지방재정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 전주시 역시 지속적인 인구 감소와 재정 악화로 인해 학교, 주민센터, 우체국 등 기존의 공공시설이 통폐합되거나 유희화되고 있음
- 그러나 사회적인 변화로 인해 돌봄이나 건강센터와 같

은 새로운 유형의 공공서비스 시설,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인해 공간 및 시민들의 행복 추구를 위한 복합문화공간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 70-80년대에 지자체에서 본격적으로 공급한 기반시설과 공공시설은 노후화되었기 때문에 적극적인 관리와 유지보수가 필요한 상황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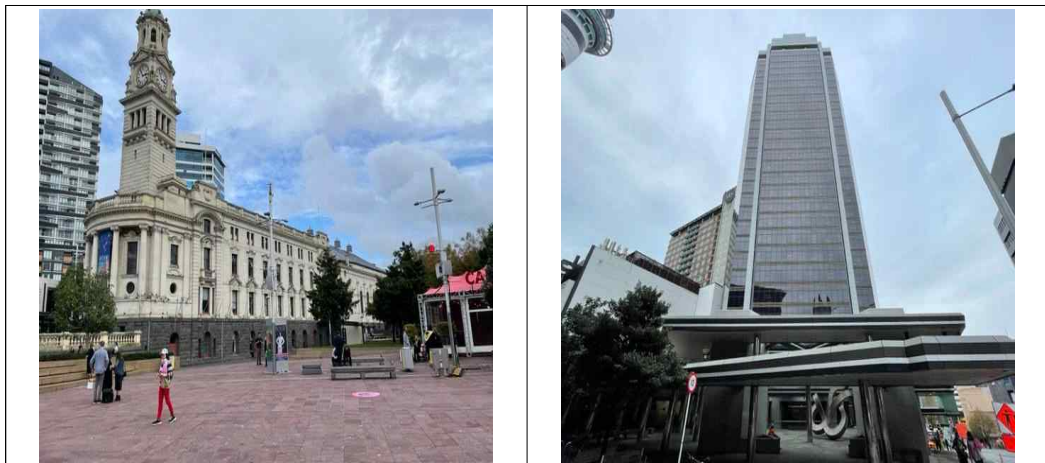
□ 출장 세부내용

- 행정재산 이전 시 공간 활용 방안 학습
 - 舊 시청사(1911년 개관) 이전에 따른 공간 활용 방안 학습(의회 회의, 청문회, 공연장으로 활용)
 - 6년간의 복원작업 끝에 전통을 되살려 관광객이 찾는 역사적인 공간으로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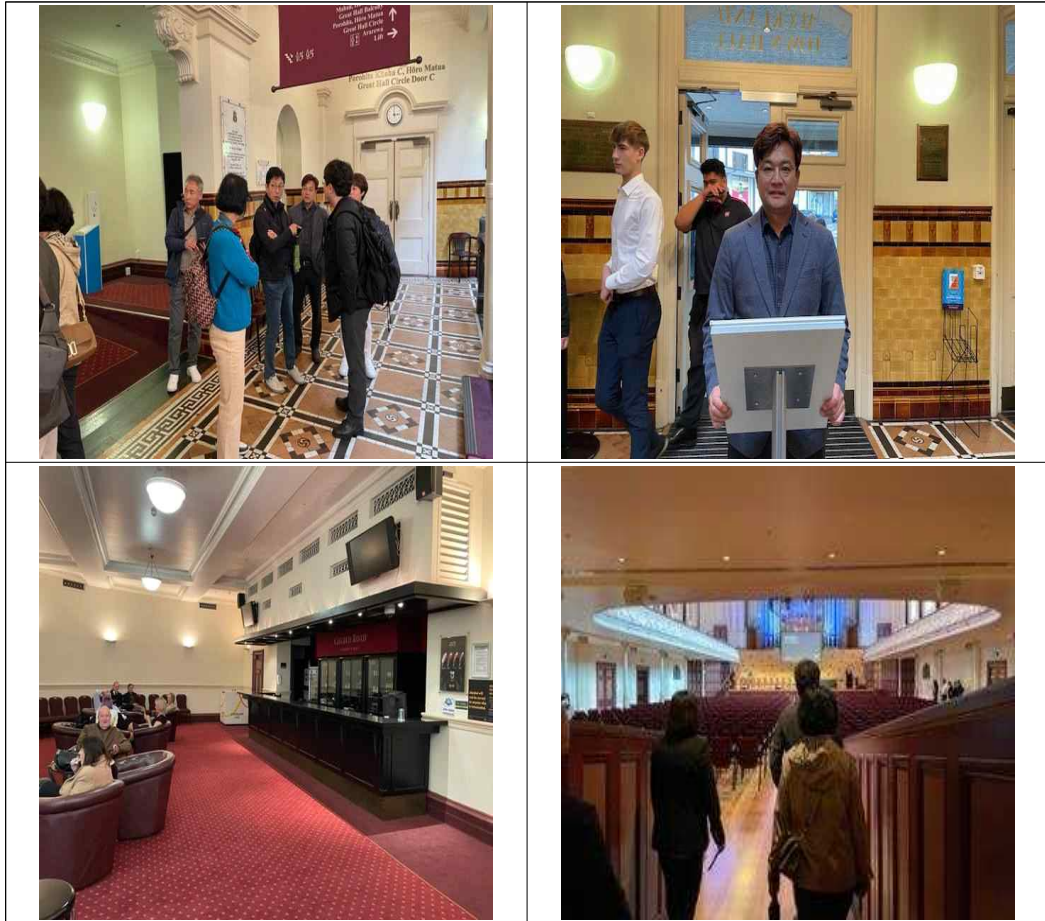
□ 연구과제 및 주요현황(상황)

- 뉴질랜드 오클랜드 舊 시청사는 1911년에 건축되어 1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퀸 스트리트에 위치한 역사적인 건물로 1997년 건물 리모델링을 통해 전통적인 모습을 복원하되, 현대적인 편의 시설과 다기능 장소로 구축되어 의회 회의 및 청문회 용도와 세계적인 콘서트 홀로써 사용되고 있음
- 2014년에 이전을 완료한 오클랜드 새로운 시청사는 퀸 스트리트의 오클랜드 비즈니스 센터에 위치하고 있으며 구시청과는 도보로 5분 정도의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약 3천명 이상의 공무원이 근무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음



- 舊 시청사의 경우 별도의 통제 없이 관광객 누구나 입장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앞쪽 광장에서는 다양한 공연과 활동 등이 진행되어 많은 관광객이 찾는 명소로 탈바꿈하였음
- 또한, 내부에는 과거 오클랜드 시청사에서 사용되었던 집무실의 모습들을 그대로 구현하고 있어 일종의 역사 체험의 장소로 활용되고 있으며, 세계 최고 수준의 콘

서트 홀 시설을 구비하여 특별음악회, 오케스트라, 연주회 등을 실시하고 있음



□ 활용방안 및 도입과제

- 전주시는 다른 지역의 사례를 참고하여 공공시설의 빈 공간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학습이 필요한데, 예를 들어 타 지역의 문화재생 사업의 사례를 조사하고 전문가와의 협력을 통해 전주시의 공간 활용 방안을 도출해야 함
- 전주시 공공시설에는 역사적인 건물이 많이 있어 건물을 관광 명소로 유치하고 다양한 문화 행사나 전시회 등을 개최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

을 강구하고 역사 체험을 제공하거나 예술 공간으로 활용하여 지역 주민들과 관광객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장소로 만들어야 함

- 공공시설의 빈 공간을 지속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운영과 유지보수가 필요하기에 본격적인 관리와 유지보수를 위한 예산을 마련하고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공간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유지해야 함
- 지역의 예술가, 문화 단체, 사회 기업 등과 협력하여 공공시설의 빈 공간을 활용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함으로써 지역 사회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고, 지역 주민들의 참여와 소통을 촉진할 수 있음
- 공공시설 빈 공간 활용방안에 대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모으고 실험할 필요가 있는데 예를 들어, 지역 예술가나 창작자들에게 공간 활용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선정된 아이디어를 실제로 적용해보는 실험적인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음

전통 공연과 전통음식의 연계를 통한 외국인 관광객 유인방안 고찰

□ 출장개요

- 일 시 : 2023. 05. 20.(토) ~ 2023. 05. 29.(월)
- 방문국가 : 뉴질랜드
- 방문목적
 - 뉴질랜드의 주요 산업인 영화 세트장을 활용한 영화·영상 산업 및 자연을 활용한 생태관광 산업에 대한 시찰 및 간담회 등 추진을 통해 전주시 경제 활성화 및 관련 산업 진흥에 연계
 - 도서관 선진도시로서 해외 공공도서관의 기능과 역할 시찰 및 간담을 통한 전주시 도입 과제 모색 및 재외 동포 교류 활성화를 통한 협력관계 모색
 - 2023 전주세계시니어배드민턴선수권대회 홍보
- 작성자 : 남 관 우

□ 현 황

- 전주시의 시정방침을 살펴보면 ‘천년미래를 여는 전주의 큰 꿈’이라는 슬로건 아래 천년 전주가 지닌 역사와 문화자산을 활용하여 세계적인 도시로 거듭나고자 하고 있음

- 또한, ‘글로벌 산업으로 우뚝서는 문화’ 라는 슬로건을 통해 전주 지역특색을 반영한 문화관광콘텐츠를 현 상황에 맞게 산업화함으로써 경제발전의 신성장동력으로 활용하고자 하고 있음
- 이처럼 전주시는 역사, 전통, 현대가 어우러진 글로벌 문화관광도시이자 가장 한국적인 도시로써 전통문화를 계승 및 발전하는데 많은 관심과 지원을 주고 있음

□ 출장 세부내용

- 마오리족은 뉴질랜드에서 천년이상 살아온 원주민으로 풍부한 문화와 전통을 가지고 있어 현대에 이르기까지 전통문화를 계승하면서 수익 창출을 이루어낼 수 있는 관광화 방식을 학습하고자 함

□ 연구과제 및 주요현황(상황)

- 뉴질랜드 로토루아 전사들의 춤인 마오리 민속쇼는 사랑, 전설, 고난 등을 상징하는 스틱을 가지고 추는 ‘스틱댄스’와 전쟁에서 적을 위협하기 위한 행위로 혀를 길게 내미는 ‘하카댄스’, 공과 풀 등을 이용하여 여성들이 주로 추는 ‘포이댄스’를 통해 자신들만의 전통을 보존하면서 관광 상품화함



- 뉴질랜드는 1841년부터는 영국의 식민지가 되면서 건물들이 대체로 영국풍을 유지하고 있는데 과거의 양식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 건물의 외형과 유사한 색을 사용한 철제를 사용해 건물들을 유지·보수하고 있으며, 지진 이후 무너진 건물들의 재건축 하면서도 과거의 양식을 그대로 복원하고자 하고 있음



□ 활용방안 및 도입과제

- 전통 공연과 음식의 패키지 상품을 개발하여 외국인 관광객에게 제공을 통해 외국인 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전통 공연을 감상한 후 전통 한식 식사를 즐길 수 있는 코스를 제공하거나, 전통 음식 체험과 함께 전통 공연을 감상할 수 있는 패키지를 구성하는 방안이 있음
- 또한,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외국어 가이드 서비스를 제공하여 전통 공연과 음식에 대한 설명과 이해를 도와 전주시의 전통 문화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다국어로 제공되는 가이드 서비스가 필요함
- 이외에도, 외국인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전통 공연과 전

통음식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을 통해 전통 공연의 배우들과 함께 춤이나 연극을 배울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하거나, 한국 전통음식을 직접 만들어보고 맛볼 수 있는 요리 체험 프로그램 제공해야함

- 전주시에서 재현하고 있는 ‘태조어진 봉안의례’의 경우 진발의식과 봉안행렬, 봉안고유제로 구성되어 해마다 행사를 치르고 있음
- 재현 행사의 한계를 넘어 많은 시민과 관광객이 참여하여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전주만의 문화 콘텐츠로써 완성도와 품격을 더욱 높여나가야 함
- 끝으로, 전주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왕의 궁원 프로젝트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사료를 면밀히 분석하여 건물들의 모양을 최대한 역사와 유사하게 복원해야 함

글로벌 다양성의 연결고리 : 공공외교 및 국제교류협력의 활성화

□ 출장개요

- 일 시 : 2023. 05. 20.(토) ~ 2023. 05. 29.(월)
- 방문국가 : 뉴질랜드
- 방문목적
 - 자매·우호도시 교류 전략적 내실화방안 논의
 - 전주시 공공외교 및 국제교류협력 활성화방안 벤치마킹
- 작성자 : 박형배

□ 현 황

-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역할이 증대됨에 따라 전세계 도시간 교류의 독자적인 영역을 구축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이 확대되고 있음
- 전주시는 10개 도시와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 관계를 맺고 활발한 교류와 사업 발굴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국제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발전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 구체적으로 미국 샌디에이고시, 중국 쑤저우시, 일본 가나자와시, 튀르키예 안탈리아시 등 4개 도시와 자매결연을 하였으며 미국 호놀룰루시, 중국 선양시, 중국 창춘시, 이탈리아 피렌체시, 중국 시닝시, 미국 뉴올리언스시 등 6개 도시와 우호 협력관계를 통해 지속적인 교류를 이어오고 있음



그림 73 전주시 자매·우호도시 현황

□ 출장 세부내용

- 전주시의회는 오클랜드 한인회, 한인생활체육회, 쿠메우 필름 스튜디오, 재외동포 국회의원 멜리사 리, 데슬리 심슨 오클랜드 부시장과의 간담회 및 업무협약 등을 시행함으로써 국제교류 활동의 필요성과 효과성을 인식함

○ 오클랜드 한인회 간담회 및 업무협약

- 오클랜드 재외동포와의 교류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와 전주시 문화 홍보를 위한 도서 100권을 기증하였으며 한인회관 내 전주시 한(韓) 스타일 홍보 공간 구축 협약을 체결하여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함. 23년 11월 착공 예정인 참전용사 기념비 및 기념관 건립 시 자문을 진행할 예정임

○ 한인생활체육회 간담회 및 업무협약

- 2023년 전주 세계 시니어 배드민턴 선수권 대회를 공동 홍보하고 대회 참가 유치 활동 협력을 위해 한인생활체육회와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생활체육 활동을 통해 이

민자들의 현지 정착과 청소년 스포츠 활동을 유도하는 방안을 주제로 논의함

○ 오클랜드 부시장 Desley Simpson(데슬리 심슨) 간담회

- 오클랜드시와 전주시 도서관, 생활체육, 생태관광 등 정책에 관하여 양 도시 간 소통과 교류를 지속하고 구청사를 고쳐 의회 회의 및 청문회장, 완벽한 음향을 갖춘 공연장으로 탈바꿈시킨 사례를 통해 공간 활용방안을 참고함

○ 재외동포 5선 국회의원 Melissa Lee 간담회

- 재외동포 5선 국회의원 멜리사 리와의 간담회를 통해 청년과 여성의 사회 및 정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교육, 정책개발, 멘토링 등 지자체의 역할과 청년의 주거 및 일자리 문제, 다문화 도시에서의 차별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함

○ 크라이스트처치 투랑가 도서관 간담회

- 뉴질랜드 제3대 도서관 중 하나인 투랑가 도서관을 방문하여 전주시립도서관 꽃심 추천 도서 100권을 기증하고 주기적으로 양 도시 간 상호 도서 기증에 관해 협의하였으며 복합문화공간으로서 공공도서관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논의함

○ 쿠메우 필름 스튜디오 간담회

- 쿠메우 필름 스튜디오를 방문하여 영화산업 활성화를 위해 영상 촬영 스튜디오와 전주영화종합촬영소의 효율적인 활용방안과 구성 방법을 논의하며, 아시아 제2 스튜디오 유치를 위한 현장 방문과 벤치마킹, 지역 인프라 개발, 대학 영화 관련 학과와의 연계 방안을 논의함



- 전주시의 경우, 한국의 전통적인 문화도시 중 하나이자 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방문하고 있기에 다양한 국가와의 국제교류협력 활성화를 통해 전주시를 홍보하여 더욱 많은 외국인 관광객 유치와 프로그램 운영,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중심적 기능을 강화해야 함

□ 연구과제 및 주요현황(상황)

- 국가 간 관계 개선과 국제 이해 증진, 외국인 투자 유치, 문화 교류 등 다양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전통적인 외교방식에서 벗어나 국가가 직접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과 협력하여 문화, 지식, 정책 등을 통해 한국에 대한 외국 국민의 이해와 신뢰를 높이는 공공외교가 증가하는 추세임

- 2016년 공공외교법의 제정으로 지방자치단체도 주도적으로 외교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지방 차원의 다양한 교류를 국제 정세에 구애받지 않고 지속하기 위해 상호 이해 증진과 신뢰 관계 구축으로 이어질 수 있는 외교 전략이 필요함
- 뉴질랜드 오클랜드의 학교와 기관들은 국제교류 내실화를 위해 업무협약과 정보교류를 확대하고 있음. 또한 상호교류 활성화와 실질적인 협력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속하고 향후 무역, 서비스,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 전주시는 다양한 지역의 주체들과 교류하여 국제사회에서 전주시에 대한 이해와 신뢰를 높이고 우호교류 및 친선결연을 도모하여 전주시 역할과 위상을 높일 필요가 있음

□ 활용방안 및 도입과제

○ 전략적 국제협력의 강화

- 다자주의 국제협력이 중요해짐에 따라 국제교류가 지역에 미치는 영향과 향후 발전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교류지역의 저변 확대
- 다양하고 지속적인 교류협력을 위해 관리를 강화하고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우호 협력을 바탕으로 일정한 신뢰관계를 형성한 후 자매결연을 체결하는 교류협력 내실화를 통한 전략적 교류 확대 필요

- 기관장 위주의 업무협약 중심의 성과성 자매결연을 지양하고 시민과 민간단체의 등 교류주체를 다원화하고 참여를 확대하여 기업 간 교류, 행정의 상호 벤치마킹 등 상호 간에 실익이 되는 교류의 내실화
- 지방자치행정과 관련된 국제기구 활용을 통해 국제활동의 기반을 마련하고 세미나, 포럼 등에 적극 참여하여 국제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전주시 위상 제고

○ 국제협력사업의 효율적 추진

- 공공외교의 중심이 거버넌스로 이동해가고 있으므로 소통과 연대에 의해 시민-기업-비영리기관 등과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지식 문화·정책 교류 프로젝트의 확대 및 정책적 지향성 공유로 지속성을 가진 관계 구축
- 공공외교를 수행하기 위한 다양한 기재 가운데 미디어는 국제사회의 여론을 우호적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함. 지역사회의 전문가들이 같이 참여하는 미디어 외교 전략을 마련하고 전주시가 기관들에 협조를 구하는 적극적인 미디어 외교 추진
- 시민과 함께하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전주시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의 도시로서 더욱 발전하기 위해 민간단체의 적극적인 참여기회를 제공하여 사업 전개 및 인프라 활용 등 공공외교 시행을 통해 시민사회 파트너십 강화

○ 전주시국제교류센터의 설립 및 운영

- 지방정부에서 공공외교와 국제교류협력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인력과 조직의 부족이라는 한계

가 있음

- 늘어나는 전주시 내 외국인 규모와 전주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다양한 유형의 국제교류협력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의 설립이 요구됨
- 전주시국제교류센터는 국제교류를 수반하는 사업의 발굴과 운영을 위해 경력이 풍부하며 국제적인 마인드를 겸비한 국제교류전문가를 채용하여 통합과 조정기능을 강화하는 효율적 운영을 통해 공공 및 민간분야 국제교류의 활성화에 기여하여 전주시의 국제화를 선도하는 기관이 될 것임

전주영화종합촬영소 활용방안

□ 출장개요

- 일 시 : 2023. 05. 20.(토) ~ 2023. 05. 29.(월)
- 방문국가 : 뉴질랜드
- 방문목적
 - 뉴질랜드 정부와 전주시의 지속적인 교류 협력 활동 및 사업방안 협의.
 - 가장 한국적인 도시인 전주시의 한옥, 한지, 한식에 대한 홍보.
 - 도서관, 생활체육, 생태관광 정책에 있어 양 도시 간 지속적 소통 및 교류 협의.
 - 쿠메우 필름 방문 및 대표와의 간담회를 통해 전주방문 및 아시아 세트장에 대한 장소 협조 및 자문 등 지속적인 협력관계 구축.
 - 2023 전주 세계 시니어 배드민턴 선수권 대회 공동 홍보 및 대회 참가 유치를 위한 활동 협약.
- 작성자 : 전윤미

□ 현 황

- 전주영화종합촬영소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 쿠메우 스튜디오를 방문하여 활용방안을 논의하고 벤치마킹 할 필요성 대두.
- 쿠메우 스튜디오 대표를 만나 간담회를 갖고 앞으로 전

주시의 지원 방향과 지역 인프라를 활용한 스튜디오 연계 방안 논의.

- 영화 세트장을 활용한 지역 관광 사업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 효과 파악하여 전주시와의 접목이 필요하다 느껴짐.

□ 출장 세부내용

- 오클랜드 부시장인 데슬리 심슨과의 간담회 및 오클랜드 청사를 방문하여 구청사를 활용한 도심형 MICE 공간 활용법으로 현재의 구청사를 의회 회의 및 청문회 장소로의 기능과 세계에서 가장 완벽한 음향을 갖춘 공연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오클랜드시를 벤치마킹하여 전주시청 이전 후의 구청사 활용 방안에 대해 논의.



- 오클랜드 시청 도서관 이민자 정책 담당자와의 간담회를 통해 재외동포와의 교류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및 한국 도시 100권 기증하고 현재 전주시에도 증가하고 있는 다문화 가정을 위한 전주시 공공 도서관의 활용법에 대해 고찰.

전주 한옥을 활용한 오클랜드 한옥 한인회관의 건축과 한옥의 세계화를 위한 한인회와의 지속적 협력 및 한옥 한인회관 내 전주시 한 스타일 홍보공간의 구축 협약.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비 및 기념관 건립 현장을 방문하여 자문.



○ 쿠메우 필름 스튜디오를 방문하여 관광자원으로서 영화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영상 촬영 스튜디오의 역할과 전주영화종합촬영소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한 스튜디오 활용 방안 및 구성 방법 논의.

아시아 제2 스튜디오를 전주시로 유치하기 위한 현장 방문 및 관련 산업 육성 사례 벤치마킹 및 지역 인프라인 지역 내 대학 스크린 산업 관련 학과를 활용한 스튜디오 연계 방안 논의.



- 호비튼 무비 세트를 방문하여 영화 세트장을 활용한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 효과를 파악하고 그에 관한 지자체의 역할 및 정책에 대한 논의.



- 로토루아 지역의 자연과 관광산업의 융합 뉴질랜드의 생태관광과 에코 투어리즘을 통해 막대한 예산 없이도 자연을 활용한 생태관광 산업화 방법에 대한 확인 및 지역 관광자원 개발을 위한 지방자치법과 오버투어리즘과 자연경관 훼손의 방지법에 대한 노하우 학습.



- 재외동포 5선 국회의원 멜리사 리와의 간담회를 통해 청년과 여성의 사회적, 정치적 참여기회 확대를 위한 뉴질랜드의 사례에 대해 연구.

청년 일자리 확충 및 거주 지원을 위한 국가 및 지자체의 역할, 다문화가정의 차별 및 갈등 해소 방안에 대해 논의.



- 크라이스트처치 투랑가 도서관에 방문하여 시민들의 복합문화공간으로서 공공도서관의 기능과 역할, 지진대비에 완벽한 도서관 건축의 노하우 학습.

도서관 시설 내 아이들이 직접 놀며 체험할 수 있는 공간 역할과 시민들의 기록물 보관 방안, 도서 자동 분류화 방식에 대해 확인하고 전주 꽃심 도서관 추천 도서 100권 기증.



- 아오라키 마운트쿡 국립공원 방문자 센터 방문 및 트레킹을 체험하고 자연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한 트레킹 주변 상업시설 설치 제한 사례 확인.

지역의 MICE 시설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관광안내소에 지역 특화 관광 관련(서울시의 등산관광안내센터와 유사) 상업시설을 기업과 결합하여 건축하고 운영하는 사례를 벤치마킹.



- 뉴질랜드 한인 생활체육회를 방문하여 스포츠관광 활성화
 화를 위한 생활체육의 역할과 뉴질랜드 청소년 스포츠정
 책을 학습하고 2023 전주 세계 시니어 배드민턴 선수권
 대회 공동 홍보 및 대회 참가 유치를 위한 활동 협약.



□ 연구과제 및 주요현황(상황)

- 쿠메우 필름 스튜디오의 영화산업 성공 노하우.
영화 아바타, 물란, 메가로돈 등의 흥행에 성공한 영화 촬영을 한 쿠메우 필름 스튜디오는 뉴질랜드에서도 손꼽히는 영화 제작소로 우리 전주영화종합촬영소가 벤치마킹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함.
- 쿠메우 필름 스튜디오와 협력관계 구축.
관광자원으로서의 영화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방향을 벤치마킹하고 우리 시의 전주영화종합촬영소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한 스튜디오 활용방안 및 구성 방법에 대해 논의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쿠메우 필름 스튜디오와 상호 장소 협조 및 자문 등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기로 함.
- 지역관광자원으로서 영화 세트장의 운영과 지역경제 기여.
반지의 제왕 촬영지 중 하나인 호비튼 무비 세트장을 방문하여 영화 세트장을 활용한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등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 파악함.

□ 활용방안 및 도입과제

- 쿠메우 스튜디오 대표의 아시아 세트장에 대한 생각과 지역인프라를 통한 일자리 창출 등 전주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에 동참하고자 장소 지원 등을 적극 협조해야할 필요성 대두.
- 영화산업의 도시가 되기 위하여 촬영장소 보존 및 활용 등을 위해 시에서 관리 감독 및 지원 방안 필요.
- 관리 감독 및 지원에 의한 예산의 일부를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관광산업으로 활성화하여 기대해 볼 수 있다고 판단됨.

체류형 관광 콘텐츠 도입 방안

□ 출장개요

- 일 시 : 2023. 05. 20.(토) ~ 2023. 05. 29.(월)
- 방문국가 : 뉴질랜드
- 방문목적
 - 뉴질랜드 정부와 전주시의 지속적인 교류 협력 방안 협의
 - 가장 한국적인 도시인 전주시의 한옥, 한지, 한식 홍보
 - 도서관, 생활체육, 생태관광 정책에 있어 양 도시 간 지속적 소통 및 교류 협의
 - 쿠메우 필름 스튜디오 방문 및 대표와의 간담회를 통해 전주 방문 및 아시아 세트장에 대한 장소 협조와 자문 등 지속적인 협력관계 구축
 - 2023 전주세계시니어배드민턴선수권대회 공동 홍보 및 대회 참가 유치를 위한 활동 협약
- 작성자 : 김 윤 철(문화경제위원회)

□ 출장 세부내용

- 금번 뉴질랜드 방문은 ‘해외연수’ 라기보다는 ‘공무 국외출장’ 이라는 군더더기 없는 실행 주제였다고 스스로 평가해본다.
- 그간 10여 년 넘는 의정활동을 되돌아볼 때 가장 많고 커다란 성과를 도출한 여정이었기 때문이다. 힘든 여정

이었지만 많이 배울 수 있어서 보람됐다. 많이 보고 배운만큼 우리 전주시의 정책 또한 살찌우리라 생각했다.

□ 연구과제 및 주요현황(상황)

- **오클랜드 재외동포와의 교류와 격려 차원에서 간담회**를 통해 현지 생활의 애로를 청취하며 국위를 선양하고자 노력하는 삶의 단면을 엿보면서 한국인으로서의 자긍심을 재무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소량이지만 전주 독립서점 추천 선정 도서를 전달하고 한인회관 및 한국전참전용사 기념관 내 한스타일 홍보 공간조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었다고 생각한다.
- 또한, 매년 전주국제영화제를 개최하는 전주에서 영화산업의 부흥을 도모하고자 **쿠메우 필름 스튜디오를 방문**하여 촬영소 내부를 견학하고 간담회를 통해 전주영화종합촬영소의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상호교류와 쿠메우 대표자의 전주 방문을 약속받고 생산적인 협력 방안을 찾아가기로 협약을 이루어낸 것은 커다란 획을 그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본다.
- 아울러 **호비튼 무비 세트장 방문과 간담회**는 현장감이 넘쳤고 영화산업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척도와 접목방안에 대해 깊이 있게 공부하는 자리가 되었다. 한마디로 문화산업이 지역민과 연대하여 융화 발전시키는 성공적인 모델을 살펴본 결과였다. 영화산업이 호비튼 지역의 주력산업으로 자리 잡기까지는 지역 주민들의 협조와 애정이 녹아들었기 때문이다.
- 그리고 **로토루아 지역 생태탐방**을 통해 말 그대로 세계 최고의 청정국가라고 평가받는 이유를 납득할 수 있었

다. 자연환경을 훼손시키지 않고 보존하며 사람과 동물 그리고 자연이 공존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들을 정책으로 입안하고 국민 공감대를 형성시켜서 국가적 차원에서 관광과 농업 그리고 축산 관광생태까지 아우르는 현장 행정은 부러움을 사기에 충분하였다.

- **크라이스트 처치 투랑가 도서관 방문** 시에는 시민들의 복합문화공간으로서 도서관 기능과 역할을 뛰어넘어서 현지인들의 치유 공간으로 자리를 잡아 가는 모습에서 훌륭한 문화정책을 접할 수 있었다. 재해복구로 시작되었지만 역사와 문화복원이라는 시대적 책무를 진지하게 진행하는 것 또한 존경스러울 정도였다.
- 무엇보다도 괄목할만한 것은 **뉴질랜드 한인 생활체육회를 방문**하여 서로 간의 애국심을 고취하는 분위기 속에서 간담회를 통해 뉴질랜드 청소년 스포츠 정책을 공유하며 생활체육 저변 확대에 근본적인 국민건강증진을 꾀하는 예방의료시스템까지도 학습했다. 또한, 2023세계시니어배드민턴 선수권대회 홍보와 대회 참가에 관한 협약으로 이번 국외 공무출장을 마무리했다.

□ **활용방안 및 도입과제**

- 로토루아 지역의 생태관광 활성화를 교훈 삼아 우리 전주시는 **아중호수를 중심으로 주변 경관과 자연환경을 더욱 아름답고 유익한 공간자원으로 재정돈하여 친환경적 생태공원으로 재탄생시킴으로써 전주를 찾는 방문객들의 관광 만족도를 극대화하고 체류형 관광의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
- 자연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새로운 관광 콘텐츠로 자

리매김한 로토루아 스카이라인 루지처럼 전주 역시 한옥마을과 아중호수를 연결하는 관광 케이블카를 설치함으로써 한옥마을 관광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야 하며 이는 곧 전주를 체류형 관광지로 만드는 시발점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오클랜드 한인회 간담회



오클랜드 부시장 간담회



쿠메우 스튜디오 시설 견학 및 간담회



호비튼 무비 세트장과 관계자 미팅



로토루아 스카이라인 루지



한인 출신 멜리사리 국회의원과 의 간담회



투랑가 도서관 견학



아오라키 마운트쿡국립공원 방문자센터

한인 생활체육회 간담회

박혜숙 의원

영화(영상)산업 확장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방안 모색

□ 출장개요

- 일 시 : 2023. 5. 20.(토) ~ 2023. 5. 29.(월)
- 방문국가 : 뉴질랜드
- 방문목적

- 뉴질랜드의 주요 산업인 영화 세트장을 활용한 영화·영상 산업 및 자연을 활용한 생태관광 산업에 대한 시찰 및 간담회 등 추진을 통해 전주시 경제 활성화 및 관련 산업 진흥에 연계

- ① 쿠메우 필름 스튜디오 방문 및 간담회
- ② 반지의 제왕 영화 세트장 방문 및 간담회
- ③ 로토루아 지역 생태관광 산업 선진지 견학
- ④ 아오라키 마운트쿡 국립공원 방문자 센터 및 트레킹 체험

- 도서관 선진도시로서 해외 공공도서관의 기능과 역할 시찰 및 간담을 통한 전주시 도입 과제 모색 및 재외 동포 교류 활성화를 통한 협력관계 모색

- ① 오클랜드 부시장 간담회 및 청사 방문
- ② 오클랜드 한인회 간담회 및 업무협약
- ③ 재외동포 5선 국회의원 Melissa Lee 간담회
- ④ 크라이스트처치 투랑가 도서관 방문

- 2023 전주세계시니어배드민턴선수권대회 홍보
: 뉴질랜드 한인 생활체육회 방문

- 작 성 자 : 박 혜 숙

□ 현 황

- 전주시는 매년 5월이면 전주국제영화제가 열리는 도시로 독립영화 관계자들과 관람객들이 전주를 찾고 있다.
- 또한 전주영화종합촬영소가 있어 다양한 영화 촬영이 진행되고 있으며, 각종 시상식에서 수상을 한 세계적인 작품인 영화 기생충을 촬영한 도시(세트장)로 유명세를 탔지만 동시에 세트장 철거로 많은 아쉬움을 남기기도 했다.
- 영화의 도시로 확고하게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영화제 활성화도 중요하지만 영화 산업의 발전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도시 이미지를 만들어나가는 것 역시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 출장 세부내용 및 주요현황

- 오클랜드 한인회, 부시장, 국회의원(Melissa Lee) 간담회
재외동포와의 교류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간담회와 전주시 독립서점 선정 도서 100권의 기증식을 가졌는데, 한국 도서가 오클랜드 재외 동포들에게 위로와 즐거움이 되고 또 우리 전주시 그리고 책 읽는 도시 전주시의 문화가 자연스럽게 알려질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임했던 시간이었다.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전주시 다문화 가정을 위한 도서관 활용법에 대해서도 의견을 들을 수 있었는데, 우리도 다문화 사회로 변화하고 있는 만큼 도서관 운영에 있어서도 다각적 고려가 필요하며, 관련 프로그램 확충이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았다.

아울러 오클랜드 한인회관 내에 한스타일 홍보 공간을 구축하기로 협약했고, 올 해 말 정도에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비 및 기념관이 한옥 스타일로 조성될 예정인데, 재외 동포들의 나라사랑과 관심에 감사하면서도 전주가 전통 문화의 중심도시이자 한스타일의 도시인만큼 각국의 한인회관은 물론 대사관 등과도 교류를 통해 전주와 한국의 문화를 알려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을 절감했다. 적극적인 교류 활성화는 전통문화 분야의 활성화와 산업화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므로 지속적인 협력관계 구축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뉴질랜드 국회의원인 Melissa Lee와의 간담회 시간 역시 의미있었다. Melissa Lee는 한국계 5선 국회의원인데, 뉴질랜드의 첫 한인 국회의원이자 한인 여성으로서도 최초의 외국인 국회의원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데 외국인을 비롯한 청년, 여성 등의 목소리를 수렴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정치적 참여 기회를 어떻게 확대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 **쿠메우 필름 스튜디오, 호비튼 영화 촬영장**

쿠메우 필름 스튜디오는 뉴질랜드의 가장 큰 영화 촬영 스튜디오로 영화 아바타, 물란, 메가로돈 등 세계적으로

흥행을 몰고왔던 작품들이 쿠메우 스튜디오에서 탄생했다고 한다.

쿠메우 스튜디오는 이번 공무국외출장 방문지 중 가장 핵심이 되는 곳이라 할 수 있는데, 3차례의 심도 있는 논의 자리를 마련하여 업무협력을 꾸준히 이어가기로 했다. 영화제작으로 인해 유발되는 경제효과가 엄청난데 우리는 영화종합촬영소를 위탁 운영하고 있고, 지역의 대학에 관련 학과의 인재풀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장점을 살려 영화 및 영상 제작 산업 발전에 힘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어 낼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이다.

호비튼 영화 세트장은 반지의 제왕 제작진이 뉴질랜드 북섬의 어느 양떼목장 주인을 설득해 호빗마을로 만들어 촬영을 진행했다고 하는데, 현재 호비튼 세트 투어라고 해서 촬영지를 투어 프로그램화해 운영 중에 있고, 전세계에서 수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있다.

지역 관광자원으로 영화세트장 운영에 대한 보존, 법인화 등 지역 경제에 기여하고 있고,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 효과를 크게 보고 있었다. 우리 전라도 영화제작소를 통한 세트장 보존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을 절실히 느끼면서 일자리 창출에 영화산업이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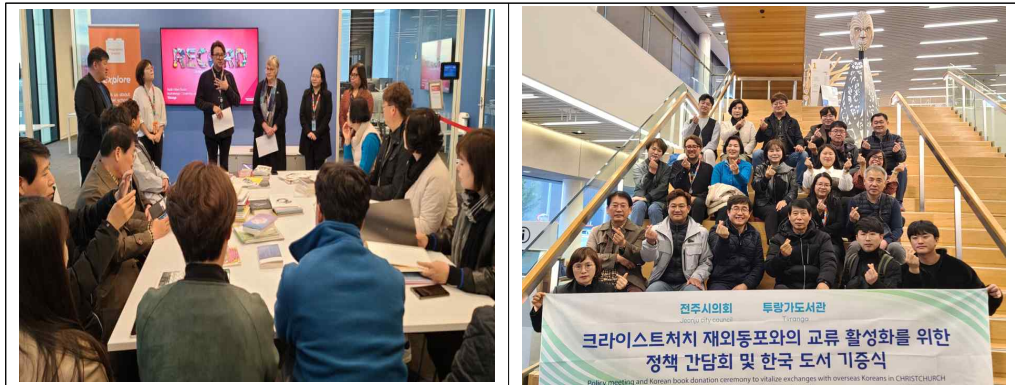


○ 크라이스트처치 투랑가 도서관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에 위치한 투랑가 도서관은 무려 1859년 연구소를 시작으로 현재에 이르고 있는데, 현재 건물 모습은 2011년도에 있었던 크라이스트처치 지진으로 인해 새로 지어져 2018년도에 새롭게 개관했다고 한다.

당시 지진 피해가 있었기에 도서관 자체가 지진에 대비한 설계가 되어 있으며, 인상 깊었던 점은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연령대가 아주 폭넓었다는 것이다.

아주 어린 아이들이 직접 체험하고 놀 수 있는 공간이 매우 잘 마련되어 있어 아이를 키우는 집이라면 도서관을 아주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주시에도 영아부터 도서관을 활용하고 자연스럽게 커가면서 도서관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도서관이 더 많이 늘어나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 생각한다.



□ 활용방안 및 도입과제

○ 전주 영화종합촬영소 활성화 방안 모색

- 전주시를 K-콘텐츠 제작의 메카로

이번 공무국의출장에서 쿠메우 필름 스튜디오와 전주시 영화산업 발전을 위해 다양한 논의를 진행했는데, 뉴질랜드 최대의 영화 촬영소로 기능하고 있는 만큼 전주영화종합촬영소의 발전적이고 효율적 활용을 위한 쿠메우 스튜디오의 자문은 전주시 영화산업의 확장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며, 그렇기에 향후에도 지속적 협력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야 할 것이다.

전주영화종합촬영소는 일반 관광객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전주에서 영화를 촬영함으로써 그에 수반되는 수많은 인력들이 장기간에 걸쳐 전주에 체류를 하게 된다는 점에서 자연스럽게 지역상권 활성화로 연계되며 영화 흥행 시 촬영장 및 촬영지인 전주시 역시 관광객들을 끌어들이 수 있는 매력적인 요소가 될 수 있으므로 전주에서 촬영을 추진할 시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지원 등에 대한 검토 및 제작사 대상의 홍보활동 등을 통해 보다 적극적인 촬영 유치 방안을 마련하여 영화종합촬영소를 보다 활성화시킬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일단 다양한 영화들이 줄지어 전주에서 촬영이 되어야 흥행하는 작품도 많아지고, 영화 관계인들이 모이고 제작자들 간 교류도 활성화될 것이며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점점 커질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전주시는 영화(영상)를 제작하기 좋은 환경 만들기에 적극적으로

나섬으로써 전주시를 K-콘텐츠 제작의 메카로 만들 방안을 구상해야 할 필요가 있다.

○ 영화(영상) 산업 관련 인력 양성

한 편의 영화가 만들어지기까지는 다양한 분야의 수많은 사람의 손길을 거쳐야만 한다. 하지만 아무리 영화 촬영에 있어 많은 부분이 수도권에서 제작팀을 꾸려서 내려온다 하더라도 모든 인력이 내려와 지역에 체류하며 제작에 뛰어들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영화 및 영상 분야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는 데에도 전주시에서 힘을 쏟는다면 믿을만한 인력풀이 확보됨으로써 제작사 입장에서는 제작 환경이 좋은 도시 전주라는 인식이 생기게 될 것이고, 우리 지역 입장에서는 지역의 특화 산업에 일자리 창출로 연계할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지역 내 대학교의 관련 학과와의 연계, 관련 분야 아카데미와 같은 인력양성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실제 현장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 역시 필요할 것이다.

지역자원을 관광자원으로 탈바꿈하는 시도의 중요성

□ 출장개요

- 일 시 : 2023. 5. 20.(일) ~ 2023. 5. 29.(월)
- 방문국가 : 뉴질랜드
- 방문목적
 - 오클랜드시·오클랜드 재외동포와의 교류 활성화 및 업무협약
 - 전주시 영화산업 발전을 위한 방안 모색 및 협력관계 구축
 - 생태관광·에코투어리즘 선진지 및 투랑가 도서관 견학
- 작성자 : 신유정 의원(문화경제위원회)

□ 현 황

- 업무협약, 기증식 등 체계적이며 전주시를 더욱 알리는 활동까지 진행하는 의회 국외연수는 소수에 불과함.
- 24회째 전주국제영화제를 진행하며 전주영화종합촬영소를 운영하는 영화의 도시 전주에서 수많은 영화와 드라마가 촬영되었으나 이를 관광자원으로 만드는 작업은 잘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
- 도시를 만들어가는 시민의 역사 자체를 기록하고 아카이빙하여 이를 직접 볼 수 있는 자원으로 만드는 작업 역시 거

의 부재함.

□ 출장 세부내용

- 뉴질랜드 내 한인회 등과의 교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및 기증식, 오클랜드 부시장 Desley Simpson과의 간담회, 재외동포 5선 국회의원 Melissa Lee와의 간담회 등 공식적인 교류 활동을 많이 하였음.
- 더불어 영화산업과 이를 관광산업으로 전환한 사례, 시민 복합 문화공간으로 자리 잡은 크라이스트처치 투랑가 도서관과 생태관광의 표본인 로토루아 지역의 관광시설을 견학함.

□ 연구과제 및 주요성과

1. 교류 활성화 등을 위한 업무협약 및 기증식

- **오클랜드 한인회 간담회 및 업무협약**
 - 오클랜드 재외동포와의 교류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간담회를 하고 전주시 홍보 및 독서문화 활성화를 위해 전주 독립서점이 선정한 도서 100권을 기증함.
 - 전주 한옥의 세계화를 위한 오클랜드 한인회와의 지속적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한인회가 계획 중인 한인회관 브리핑과 함께 전주시 한(韓)스타일 홍보관 관련 논의 후, ‘오클랜드 한인회관 및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관 내 전주 한스타일 홍보관 조성 업무협약’을 맺음.
 - 한옥 스타일 참전용사 기념비 및 기념관 건축 브리핑(23년 11월 착공 예정)을 듣고 전주 한옥에 대한 자문을 진행하

기로 함.

○ 뉴질랜드 한인생활체육회와의 간담회 및 업무협약

- 2023 전주세계시니어배드민턴선수권대회 홍보영상을 상영하고 스포츠관광 활성화를 위한 생활체육의 역할에 대해 논의 후, 2023 전주세계시니어배드민턴선수권대회 참가 독려 및 공동 홍보 업무협약을 맺음.

○ 크라이스트처치 투랑가 도서관과의 간담회 및 도서 기증식

- 도서관 내 한국 도서는 작게 한 코너밖에 없던 투랑가 도서관에 전주 지역 작가들의 책을 포함한 전주시립도서관 꽃심 추천 도서 100권을 기증하여 크라이스트처치 지역 재외동포의 독서문화 활성화와 크라이스트처치 시민들에게 전주의 한문화를 홍보하였음. 더불어 주기적으로 양 도시 간 상호 도서 기증을 협의함.

2. 쿠메우 필름 스튜디오 방문 및 간담회

○ 쿠메우 필름 스튜디오의 시설 현황

- 쿠메우 필름 스튜디오는 영화 ‘아바타’, ‘물란’, ‘메가로돈’, ‘아마존 배경의 영화 등 많은 영화를 촬영한 세계 규모의 필름 스튜디오임. 스튜디오 내 촬영 세트를 자체 제작할 수 있는 목공작업 제작소가 마련되어 있으며 32도까지 수온을 맞출 수 있는 물탱크가 있어 수심 속 영상 촬영이 가능함. 컨테이너로 탑을 쌓고 컨테이너 표면에 그린스크린을 설치하여 원활한 CG 작업을 위한 환경을 갖추. 더불어 스튜디오 바로 앞에 있는 숲에서 간단한 촬영까지 가능함.
- 이러한 시설을 운영하고 행정과의 협업을 통해 한 영화당 약 2,000여 개의 일자리가 창출되며 오클랜드 시를 비롯한

뉴질랜드 국가가 깊이 각인되는 효과를 보여주고 있음.

○ 행정과의 명확한 역할 분담과 서포트를 통한 영화산업 활성화

- 스튜디오에서 할리우드 영화를 촬영하고 가면 약 1억불 정도를 소비하고 가게 되는데 이에 뉴질랜드 정부가 세금 일부를 돌려주는 20% 인센티브를 부여함. 더불어 배급 비용 등을 뉴질랜드 내 은행사·투자사와 연계하여 미국 영화이더라도 뉴질랜드 은행이 수익 창출이 가능하도록 돕고 있음.
 - 국가적인 차원에서 영화산업을 장려하기 위해 이민정책이 잘 되어있음. 타 국가 유명감독의 가족 이주와 학교까지 지원해주어 촬영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도움.
 - 민간협력으로 민간투자·개발을 진행하기도 하지만 시청과 장기적인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오클랜드 시청 산하 기관에서 투자사 관리를 하는 컨설팅그룹이 있음.
 - 오클랜드 행정조직(AFS)에서 스튜디오 영업을 하고 있으며 시가 현재까지 분석한 영화 촬영 빅데이터가 있어서 영화제작사가 원하는 예산으로 찍을 수 있는 장면과 어떤 장르인지에 따라 몇 월에 찍는 것이 좋은지와 같은 내용까지 제안해줌. 더불어 영화 인허가 업무도 행정이 대행하고 있으며 숙박업소 비용도 산출해주고 있음.
- 2차례에 걸친 간담회를 통해 전주시와 쿠메우 필름 스튜디오 상호간 장소 협조 및 자문을 진행하는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였음. 또한 전주 지역의 대학 영화방송학과 등 인프라를 활용하여 전주 촬영소를 활용하고 구성하는 방법에 대해 논의하였음.

3. 호비튼 무비 세트장 투어 및 CEO Russell Alexander과의 간담회

○ 지역 관광자원으로서의 영화 세트장 운영 방법

- 호비튼 무비 세트장은 영화 ‘반지의 제왕’을 촬영한 세트장으로 이를 보존하여 지역 관광자원으로 만들었음. 신선한 재료로 만든 음식을 판매하는 레스토랑, 굿즈샵이 입구에 위치해 있으며 투어 프로그램 참여 시 투어버스를 타고 세트장 내부로 들어가 진행이 되고 있음. 투어 마지막에는 카페에 들어가 음료 1잔을 제공하고 있음. 영화 속에서만 볼 수 있었던 아기자기한 세트장과 잘 가꾸어진 정원들은 관광객에게 이색적인 경험을 제공함.
- 더불어 항공사 에어뉴질랜드, 대한항공 등과의 협업도 진행하고 있어 관광객의 편한 여행 계획을 만들기 위해 투어 시간도 항공사와 조정하고 있음. ex) 오전 시간: 한국인

○ 지역 경제 기여 및 사회공헌을 통한 지역사회와의 상생

- 세트장 방문객 85% 이상이 외국인임. 첫해에는 1만 1,000명이 방문했으나 2019~2020년에는 60만 명이 방문함. 이는 뉴질랜드 전체 관광지 중 2번째로 많은 관광객이 오는 장소이며 매년 450억에 달하는 입장료 수익을 창출하고 있음. 방문객의 42%는 영화를 보지 않았음에도 방문하고 있음. 더불어 2012년 17명의 직원이 현재는 거의 500여 명에 달하며 많은 일자리를 창출함. 농업·목축업만 있던 지역에 관광업을 활성화한 모습을 볼 수 있음.
- 세트장 방문객이 늘며 관광 차량과 주민 교통사고나 주차장 혼잡문제와 같은 오버 투어리즘은 지역 커뮤니티랑 소통해서

해결하고 있음.

- 전반적으로 관광업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지역 주민을 교육하며 스터디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레스토랑에서 만드는 음식들로 학생들에게 하루 150개의 점심 도시락을 배달하고 있음.
- 더불어 오래된 스쿨버스 교체 및 지역 주민 입장료 90% 할인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수익의 일부는 지역 스포츠클럽을 통해 기부하고 있음.

□ 활용방안 및 도입과제

○ 전주영화종합촬영소의 활발한 영화 촬영 유치에 위한 행정·시설 지원 및 행정의 명확한 역할 분담

- 전주영화종합촬영소에서 촬영을 희망하는 제작사들에 촬영에 도움이 되는 정보 공유가 세세한 부분까지 가능하도록 그동안 촬영한 영화·드라마의 기본정보를 비롯한 세부 데이터를 정리하고 가공하는 빅데이터 작업이 필요함.
- 메인 촬영장도 중요하지만, 서브 공간도 필요한 만큼 부족 시설 확충 및 세트장 자체 제작이 가능하도록 목공작업제작소 지원이 필요함.

○ 영화·드라마 세트장의 관광 자원화

- 호비튼 무비 세트장은 영화를 촬영한 지 약 20년이 지났는데도 세트장을 관광 자원화하여 유명 관광명소로 자리 잡음. 콘텐츠 IP, 세트장 물품의 내구성 등 현실적으로 논할 사항이 많지만, 영화의 도시 전주에서 보다 효과적인 운영 방안을 모색하여 이들을 관광자원으로 만드는 시도를 해봐야 함. 세트장의 일부 물품이라도 전시하여 관광객이 볼 수

있도록 전시관 구축이 필요함.

<로토루아 지역 생태관광과 에코 투어리즘 견학>

○ 로토루아 지역 관광시설

- 로토루아 지역은 뉴질랜드의 환경 자원을 크게 훼손하지 않고 자연을 활용한 생태관광산업이 자리잡혀있음.
- ‘스카이스윙’ (기구를 타고 올라가 손잡이를 당겨 떨어지면 중력의 힘으로 진자운동을 하는 놀이기구)과 같은 시설은 큰 규모의 부지가 필요하지 않으며 자연경관까지 볼 수 있는 로토루아 지역 특성에 맞는 놀이기구임.
ex) 로토루아 루지, 산악자전거 체험
- ‘레드우드 와카레와레와 산림공원’ 은 숲 내 트리워크가 설치되어 있어 체험객들이 나무와 나무 사이를 긴 구간 동안 걸을 수 있으며 25개의 정글 브릿지, 3개의 플라잉 박스, 1개의 빅점프 등이 가능한 어드벤처가 있음.

<크라이스트처치 투랑가 도서관 방문 및 간담회>

○ 시민들의 복합문화공간으로서 공공도서관의 기능

- 2011년 대지진 후 아직 복구 중인 상태인 크라이스트처치는 지진 대비 설계를 반영한 투랑가 도서관을 건축했으며 도서 자동 분류화 기계를 통해 원활한 도서 분류 작업을 수행하고 있음.
- 오픈 크리에이티브 공간이 있어 요일별 다양한 수업이 이뤄지고 있으며 기타 공간에서도 시민들이 모여 활동할 수 있는 클래스 모집 공고가 많음.
- 도서관 내 스터디룸을 비롯하여 회의가 가능한 미팅룸까지

구축되어 있음. 또한 1층 로비에는 대형 TV와 게임을 할 수 있는 공간이 구비되어 있음.

뉴질랜드는 커리큘럼은 있으나 정해진 교과서 없이 도서관을 활용한 독서를 통해 학습, 토론하는 방식의 교육을 하고 있음. 매일 하는 숙제가 책을 읽고 가족과 소감을 나누고 학교에 가서 스피치와 토론을 진행하는 것임.

○ **쌍방향 소통이 가능한 체험시설 및 역사 자원을 유산화한 공간**

- **디스커버리 월**

: 전문 IT팀이 제작하고 운영하는 디지털 화면(벽에 위치)으로 크라이스트처치 지역의 옛 사진을 제보받아 화면에 구현해 놓았음. 자매결연도시에서 보낸 해외 사진들도 검색이 가능함. 실시간 촬영하고 메일로 전송하는 시스템도 포함되어 있음.

→ 이를 통해 도서관이 단순 도서관으로서의 기능뿐만 아니라 박물관의 기능까지 하고 있음을 볼 수 있음.

- **가족의 역사를 적어놓은 종이(Register Index)를 보관하는 캐비닛& 1900년대의 신문을 작은 형태(CPL Newspaper Index)로 보관해놓은 서가**

: 생일, 부모님의 성함, 주소, 직업 등을 적은 종이를 대대손손 작성하여 한 칸의 서랍에 한 가족의 종이를 보관하고 있음. 이 기록물은 가족 역사 연구 목적과 아카이빙으로 시민들이 편하게 관람할 수 있음. 더불어 이전의 신문을 CPL 방식을 사용하여 보관하고 확대하여 볼 수 있는 기계로 지난 역사를 직접 볼 수 있음.

□ 활용방안 및 도입과제

○ 환경을 크게 해치지 않고 주변 생태환경을 고려한 관광시설 구축
(놀이기구, 어드벤처 시설 등)

- 전주 케이블카 설치와 전주드림랜드 시설 확장 시 논의되어야 할 부분임.

○ 시민 아카이빙 공간 구축 및 웹자원 아카이빙 진행

- 시민의 이야기와 역사가 자원이 될 수 있기에 관련 아카이빙 작업 및 공간 구축이 필요함. 페이퍼 아카이빙 뿐만 아니라 웹자원으로 아카이빙 될 수 있도록 데이터 작업을 접목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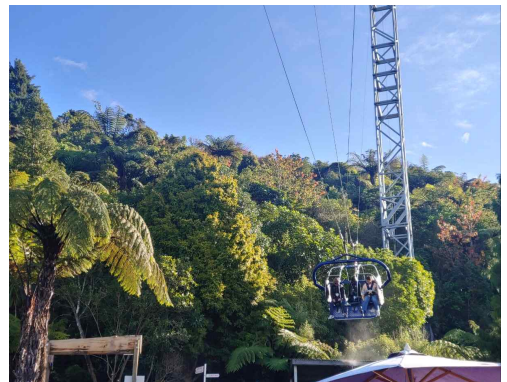
쿠메우 스튜디오 시설 견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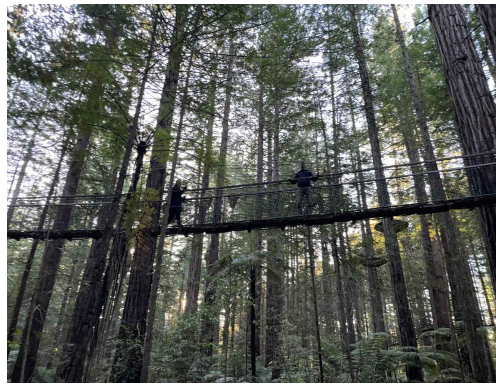
호비튼 무비 세트장 CEO 간담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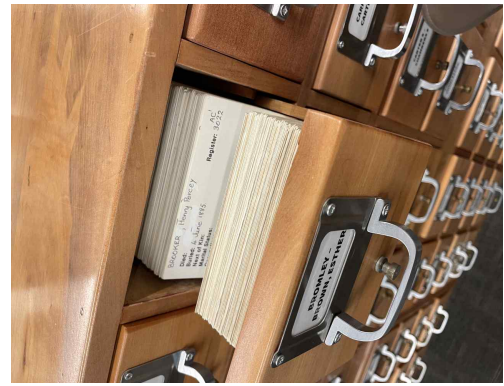
영화 속 그대로인 호비튼 무비 세트장의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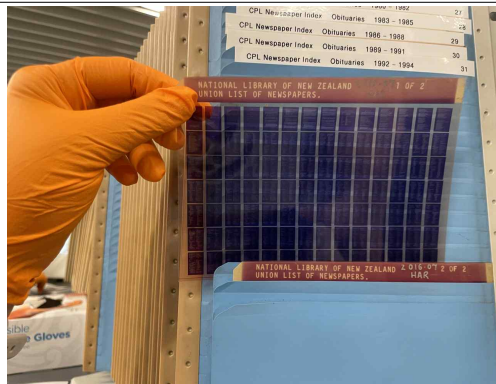
로토루아 스카이스윙 놀이기구



와카레와레와 산림공원 트리워크



크라이스트처치 투랑가 도서관 내 가족의 역사를 담은 캐비닛



크라이스트처치 투랑가 도서관 내 이전의 신문을 볼 수 있는 서가 (CPL Newspaper Index)



크라이스트처치 투랑가 도서관 내 디스커버리 월

영화관광 및 생태관광 활성화 방안

□ 출장개요

- 일 시 : 2023. 5. 20.(토) ~ 2023. 5. 29.(월)
- 방문국가 : 뉴질랜드
- 방문목적
 - 뉴질랜드의 주요 산업인 영화 세트장을 활용한 영화·영상 산업 및 자연을 활용한 생태관광 산업에 대한 시찰 및 간담회 등 추진을 통해 전주시 경제 활성화 및 관련 산업 진흥에 연계
 - 도서관 선진도시로서 해외 공공도서관의 기능과 역할 시찰 및 간담을 통한 전주시 도입 과제 모색 및 재외 동포 교류 활성화를 통한 협력관계 모색
 - 2023 전주세계시니어배드민턴선수권대회 홍보
- 작성자 : 온혜정

□ 현 황

- 영화 <아바타>, <물란>, <메가로돈> 등을 촬영한 쿠메우 필름 스튜디오(Kumeu Film Studios)는 영화 전문 촬영 스튜디오로 뉴질랜드 영화산업의 상징적인 공간이자 대표 관광자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 판타지 소설이자 영화인 <반지의 제왕>과 후속작 <호빗>

의 실제 촬영지인 호비튼 무비 세트(The Hobbiton Movie Set)를 운영하는 전문 운영 기업을 설립하고, 영화 속 명소를 둘러보는 ‘호비튼 투어’ 를 관광 상품화하고 있음.

- 아름다운 자연환경이 매력적인 로토루아 지역은 자연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케이블카, 루지 등 새로운 관광 콘텐츠를 결합해 생태 관광명소로 인기를 끌고 있음.

□ 출장 세부내용

- 오클랜드 한인회 간담회

- 오클랜드 한인회관 내에 전주시 한(韓) 스타일 홍보 공간 구축 협약 및 한국전 참전용사 추모비 조성 현장 방문



- 오클랜드 부시장인 데일리 심슨(Desley Simpson) 간담회 및 구 오클랜드 청사 방문

- 세계에서 가장 완벽한 음향을 갖춘 구 시청사를 리모델링해 공연장으로 탈바꿈시킨 사례 연구



- 쿠메우 필름 스튜디오(KUMEU FILM STUDIO) 방문 및 간담회
 - 전주영화종합촬영소 활용 및 아시아 제2 스튜디오 전주 유치 방안 등에 관한 논의



- 반지의 제왕 영화 세트장 방문 및 지역관광추진조직과의 간담회
 - 영화 세트장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한 사례 벤치마킹



- 로토루아 지역 생태관광 산업 선진지 견학
 - 천혜의 관광자원을 훼손하지 않고 관광지로 개발하는

뉴질랜드의 생태관광 노하우 학습



- 재외동포 5선 국회의원 멜리사 리아(Melissa Lee)와 간담회
- 여성과 청년의 사회·정치적 참여 확대를 위한 뉴질랜드의 사례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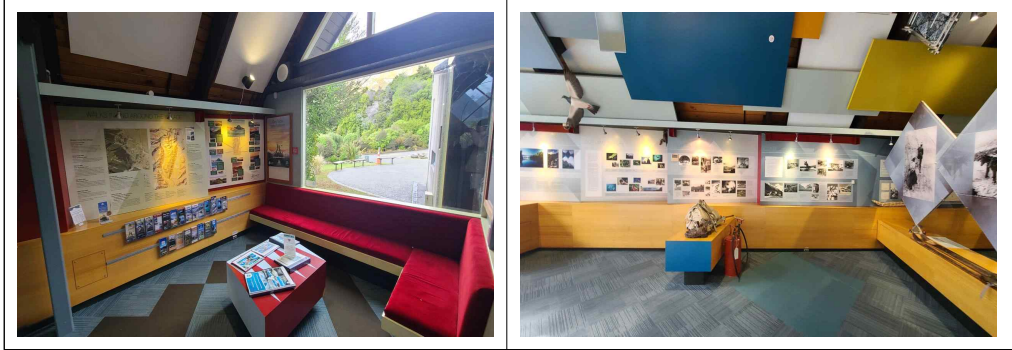


- 크라이스트처치 투랑가 도서관 방문 및 도서 기증
- 복합문화공간이자 평생교육 공간으로 자리를 잡은 도서관 견학 및 전주시립도서관 추천 도서 기증



- 아오라키 마운트쿡 국립공원 방문자 센터 방문 및 트레킹 체험

- 쇼핑, 박물관, 회의실을 결합한 관광안내소 건축 및 세계에서 대표적인 트레킹 관광지 체험



○ 오uckland 한인 생활체육회 방문

- 한인들의 생활체육 활동 벤치마킹 및 뉴질랜드의 청소년 스포츠 정책 학습



□ 연구과제 및 주요 현황

○ 관광자원으로서의 영화산업의 활성화

- <반지의 제왕> 영화 <호빗> 무비 세트장인 ‘마타마타(호비톤)’는 인구수 7,000여 명에 불과한 작은 도시이지만, 영화산업으로 한해 수입 700억 원의 수익을 창출하고 있음.
- 영화 세트장을 활용해 오uckland 지역 관광산업이 활성화되고 있으며, 이는 지역 사회공헌 활동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경제적 효과로까지 이어지고 있음.

- 전문 운영 기업이 영화 세트장을 운영하는 것처럼 뉴질랜드는 관 중심의 하향식 시행이 아닌 민간이 폭넓게 참여하고 협력하는 체계가 구축되어 있음.

○ 관광자원으로서의 생태관광의 도입

- 세계인이 꿈꾸는 트레킹 천국이라는 수식어에서 알 수 있듯이 뉴질랜드는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활용한 트레킹 코스 등 관광상품이 마련되어 있음.
- 넓은 초지를 활용한 양묘로 유명한 아그로돔은 단순히 보고 즐기는 관광이 아닌 여행객이 직접 느끼고, 체험하는 콘텐츠 발굴로 호평받고 있음.

□ 활용방안 및 도입과제

- 전주는 영화산업의 규모는 작지만, 미국의 영화 전문매체 <무비메이커>가 뽑은 ‘세계에서 가장 멋진 25개 영화제’로 손꼽히는 전주국제영화제를 24년째 개최해온 저력이 있는 영화의 도시이기에 영화산업에 대한 공격적인 투자와 직·간접적인 지원이 이어진다면, 경쟁력을 갖춘 관광 콘텐츠로 발전 가능성이 충분함.
- Asia 제2 스튜디오를 전주시로 유치하기 위해 전주시와 쿠메우 필름 스튜디오 상호 장소 협조 및 자문 등을 위한 지속적인 협력관계 구축 마련이 시급함.
- 지역 내 대학 스크린 산업 관련 학과 등 지역 인프라와 연계한 세트장 활용방안 마련 및 전주영화종합촬영소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행정과 시의회의 더욱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

- 뉴질랜드가 대표적인 트레킹 코스를 개발하여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는 것처럼 전주시도 산과 호수 등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풍부한 역사, 문화 장소를 연계한 트레킹 코스 개발이 필요함.
- 뉴질랜드가 친환경 생태관광으로 주목받고 있는 것처럼, 탄소중립 시대를 맞아 전주시 역시 새로운 관광 콘텐츠를 도입함에 있어 관광자원을 훼손하지 않는 개발이 필요해 보임.

쿠메우 필름 스튜디오를 통해 본 전주 영화산업 발전 방안

□ 출장개요

- 일 시 : 2023. 5. 20.(토) ~ 2023. 5. 29.(월)
- 방문국가 : 뉴질랜드
- 방문목적
 - 뉴질랜드의 주요 산업인 영화 세트장을 활용한 영화·영상 산업 및 자연을 활용한 생태관광 산업에 대한 시찰 및 간담회 등 추진을 통해 전주시 경제 활성화 및 관련 산업 진흥에 연계
 - ① 쿠메우 필름 스튜디오 방문 및 간담회
 - ② 반지의 제왕 영화 세트장 방문 및 간담회
 - ③ 로토루아 지역 생태관광 산업 선진지 견학
 - ④ 아오라키 마운트쿡 국립공원 방문자 센터 및 트레킹 체험
 - 도서관 선진도시로서 해외 공공도서관의 기능과 역할 시찰 및 간담을 통한 전주시 도입 과제 모색 및 재외 동포 교류 활성화를 통한 협력관계 모색
 - ① 오클랜드 부시장 간담회 및 청사 방문
 - ② 오클랜드 한인회 간담회 및 업무협약
 - ③ 재외동포 5선 국회의원 Melissa Lee 간담회
 - ④ 크라이스트처치 투랑가 도서관 방문
 - 2023 전주세계시니어배드민턴선수권대회 홍보

- : 뉴질랜드 한인 생활체육회 방문
- 작성자 : 이 성 국(문화경제위원회)

□ 현 황

- 1950년대와 60년대 한국 영화 제작의 중심지로 불렸던 전주는 한국 최초의 컬러영화인 최성관 감독의 <선화공주>, 리얼리즘 영화의 백미로 평가받는 이강천 감독의 <피아골> 등 한국 영화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영화들이 다수 제작되며 한국을 대표하는 영화 도시로의 기틀을 마련하였음.
- 2000년 ‘디지털·대안·독립’이라는 슬로건을 출범한 전주국제영화제는 대안독립영화의 축제라는 독자적인 영역을 구축하며 국제적인 명성을 쌓아가고 있으며, 영화제와 더불어 전주를 세계적인 독립영화의 중심지로 만들 ‘전주 독립영화의 집’ 건립 사업이 진행되고 있음.
- 제72회 칸 국제영화제 황금종려상을 받은 영화 <기생충> 촬영지로 이름을 알린 전주영화종합촬영소는 J1·J2 스튜디오와 야외세트장이 연중 가동되는 등 서남권을 대표하는 영화 촬영 거점으로 성장하였음.

□ 출장 세부내용

- 약 500만 명의 뉴질랜드는 인구 중 30% 150만 명은 뉴질랜드 최대의 항구도시인 오클랜드에 거주하고 있으며, 그 중 40% 이상은 1960년대부터 자국의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입된 해외 이주민들이 정착해 살고 있음.
- 2014년 처음 도입된 뉴질랜드 영화제작기금(The New Zealand Screen Production Grant, NZSPG)은 뉴질랜드 현지에서 촬영

시 현지 제작비의 20%를 현금으로 보조받는 로케이션 유치 정책으로 뉴질랜드는 촬영 시 1억불 정도를 소비하는 할리우드 영화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며 영화산업 활성화를 꾀하고 있음.

- <반지의 제왕> 촬영지이자 후속작인 <호빗> 시리즈의 배경으로 사랑받는 호비톤 무비 세트(Hobbiton Movie Set)는 자연 그대로의 아름다운 풍광과 영화 속 명소를 활용해 뉴질랜드의 대표 관광 상품으로 자리매김하였음.

□ 연구과제 및 주요현황(상황)

○ 쿠메우 필름 스튜디오(KUMEU FILM STUDIO) 지리적 상황과 특징

- 쿠메우 필름 스튜디오(KUMEU FILM STUDIO)는 영화 제작의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외부와의 접촉이 제한적이며, 소음을 제어하기 위해 도시 외곽에 위치하고 있음. 스튜디오의 층고는 20m, 면적은 27헥타, 평수로는 약 8만평 규모로 조성되어 있음.

○ 쿠메우 필름 스튜디오(KUMEU FILM STUDIO) 촬영 여건

- 영화 <아바타>, <물란>, <메갈로돈> 등 수많은 할리우드 영화가 이곳에서 촬영된 이유는 실내 촬영소는 턱없이 부족하지만, 800여 명의 주차 공간을 확보하고 있고, CG 촬영을 위한 대규모 야외세트장 보유하고 있기 때문임.

○ 쿠메우 필름 스튜디오(KUMEU FILM STUDIO) 지차제의 노력

- 뉴질랜드는 세계적 블록버스터 영화 제작 유치를 위해 국제

영화제작기금을 만들어 영화 제작 비용의 20%를 영화사에 현금으로 제공하는 파격적 정부 지원 정책을 추진해 왔으며, 이러한 정책에 힘입어 뉴질랜드는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영화 촬영지로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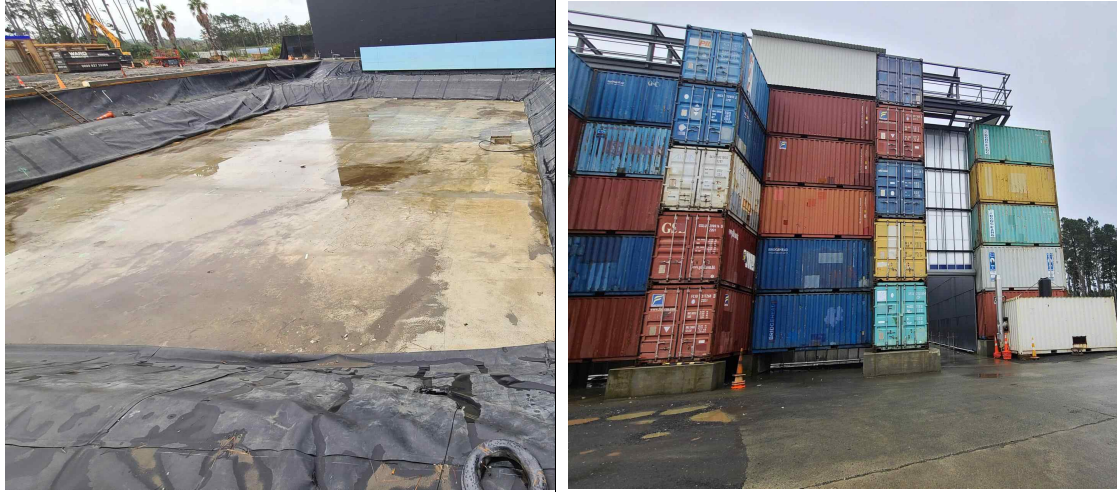


□ 활용방안 및 도입과제

○ 전주영화종합촬영소의 실내외 촬영소 및 확장

- 전주영화촬영소는 병원, 경찰서 등 상시 촬영이 가능한 J3스튜디오 증설이 필요하며, 실내 CG촬영을 더욱 크게 촬영할 수 있는 스튜디오 추가적인 건립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 촬영 때마다 짓고 부수기를 반복하는 야외 촬영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쿠메우 필름 스튜디오(KUMEU FILM STUDIO)와 같은 대규모 상설 야외 CG촬영장이 필요함.

쿠메우 필름 스튜디오(KUMEU FILM STUDIO) 세트장



○ 쿠메우 필름 스튜디오(KUMEU FILM STUDIO)와의 업무 제휴

- 쿠메우 필름 스튜디오(KUMEU FILM STUDIO)와는 다르게 전주는 영어권이 아니기에 할리우드 제작사를 유치하기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발생함.
- 쿠메우 필름 스튜디오(KUMEU FILM STUDIO)와 전주시가 업무 제휴를 맺고 지속적인 업무 제휴를 맺고, 한국의 지리적

특성을 이용한 해외 작품들의 촬영을 전주로 유도하는 전략과 방안 마련이 필요함.

○ 전주국제영화제작기금 필요성

- 스튜디오의 적극적인 영화제작사 유치를 위해 뉴질랜드의 국제영화제작기금 방식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함.
- 전주가 지금 당장 영화제작기금을 만들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발생하겠지만, 영화제작사에 돌아갈 수 있는 실질적인 혜택 마련 등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과 대안 마련이 필요함.

○ 지역 인프라를 활용한 스튜디오 실습 연계

- 관내 영화방송학과 출신 동문들은 드라마영화 제작, 촬영에 관련한 일자리가 없어 전주를 떠나고 있는 실정임.
- 해외 스튜디오와의 업무협약을 통한 해외스튜디오와의 업무협약을 통한 헐리우드 촬영 실습 제공 및 전주영화종합촬영소를 활용한 일자리 창출.

문화경제위원회 전주영화종합촬영소 현장방문



장병익 의원

도서관 위케이션 활용방안

□ 출장개요

○ 일 시 : 2023. 5. 20.(토) ~ 2023. 5. 29.(월)

○ 방문국가 : 뉴질랜드

○ 방문목적

- 뉴질랜드의 영화·영상 산업 및 자연을 활용한 생태관광 산업에 대한 시찰 및 간담회 등 추진을 통해 전주시 경제 활성화 및 관련 산업 진흥에 연계

① 쿠메우 필름 스튜디오 방문 및 간담회

② 반지의 제왕 영화 세트장 방문 및 간담회

③ 로토루아 지역 생태관광 산업 선진지 견학

④ 아오라키 마운트쿡 국립공원 방문자 센터 및 트레킹 체험

- 도서관 선진도시로서 해외 공공도서관의 기능과 역할 시찰 및 간담을 통한 전주시 도입 과제 모색 및 재외 동포 교류 활성화를 통한 협력관계 모색

① 오클랜드 부시장 간담회 및 청사 방문

② 오클랜드 한인회 간담회 및 업무협약

③ 재외동포 5선 국회의원 Melissa Lee 간담회

④ 크라이스트처치 투랑가 도서관 방문

- 2023 전주세계시니어배드민턴선수권대회 홍보

: 뉴질랜드 한인 생활체육회 방문

○ 작성자 : 장병익(문화경제위원회)

□ 현 황

- 요즘 새롭게 주목 받는 ‘워케이션(workcation)’은 ‘일(Work)’과 ‘휴가(Vacation)’의 합성어로, 답답한 집이나 사무실을 벗어나 새로운 장소에서 업무도 하고 재충전을 위한 힐링도 하는 새로운 근무제도를 말한다.

-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재택근무가 활성화되고, 원격근무가 확대되면서 빅테크 기업이나 스타트업에서는 차별화된 복지 제도나 근무 환경의 하나로 워케이션을 도입하는 곳들이 점차 늘고 있다.

-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19년을 기점으로 일과 가정의 균형을 중시하는 ‘워라벨 사회’로 변모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 국민들은 가정보다 일을 우선시 하는 경향이 많았는데, 2019년 ‘워라벨’을 중시하는 사람들이, 일이 우선이라는 사람을 처음으로 앞질렀다. ‘일과 가정의 중요도가 비슷하다’는 응답이 44.2%를 차지하는 한편 ‘일을 우선한다’는 응답 42.1%보다 높아졌다. 2021년에는 그 격차가 더욱 벌어졌다.

- 한국형 워케이션도 일본, 유럽, 뉴질랜드처럼 기업과 근로자와 지방자치단체, 중앙정부가 협력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기업은 인재를 확보하고, 개인은 워라벨에 대한 욕구를 충족함으로써 지방 소멸을 늦추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 출장 세부내용

크라이스트처치 투랑가 도서관 방문

- 시민들의 복합문화공간으로서 공공도서관의 기능과 역할

- 크라이스트처치 투랑가 도서관을 방문하며, 전주가 위케이션을 할 수 있는 기초 토대를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크라이스트처치 투랑가 도서관은 일반 도서관의 기능을 뛰어넘어 아이들이 책을 읽고 놀며 즐길 수 있는 책 놀이터이자 부모들이 아이를 돌보며 자신만의 일을 할 수 있는 공간이다. 뿐만 아니라, 디지털 대전환의 이슈를 선도하는 곳 역시 도서관이다. 이곳은 서류나 시민들의 추억이 담긴 사진과 같은 각종 기록물을 3D 데이터 작업을 통해 보관하여 이용자들에게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마지막으로, 도서관은 청년들의 창업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새로운 도전에 나선 청년들을 위한 창업지원 공간이 되고 있다. 도서관에서는 체험 부스를 통해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디지털 교육 및 창업 인큐베이팅과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이 가장 인상 깊었다.

투랑가 도서관 견학





□ 연구과제 관련자료 및 주요내용

- 우리나라 CJ ENM는 지난해 도입한 위케이션 제도를 통해 직원들이 한 달 간 제주살이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CJ의 경우 제주에 거점오피스를 만들어 근무를 휴가처럼 할 수 있게 조성해 주었으며, 한화생명 역시 8월부터 강원도 양양의 호텔과 손잡을 워케이션을 진행한다. 직원들은 카페, 도서관 등의 시설을 이용하면서 근무를 하고, 요가·트레킹 같은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다.

- 사실 우리가 워케이션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얼마되지 않았다. 몇 년 전부터 워케이션 붐이 시작된 일본에는 이시카와현 가나자와 시내에 위치한 이시카와현립도서관이 있다. 이 도서관은 일본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서관으로 소문나며, 단 5개월 사이에 53만 명의 사람들이 이용했다.

입장료도 받지 않는 공공도서관을 우아하게 건립한 이유는 최소 50년 동안 이 지역의 문화적 토대가 될 도서관을 건립하는 것이 목표였기 때문이다. 이 도서관 건립에 시민들은 반대하지 않았다. 게다가 이시카와현은 일본에서 가장 많은 관광객이 찾는 ‘21세기 미술관’과 함께 건축 투어에 반드시 포함되는 ‘우미미라이도서관’ 등을 통해 문화 자원의 힘을 경험할 수 있는 도시이다. 이러한 문화 자산 덕분에 이시카와현은 코로나19의 여파 속에서 빠져나간 ‘워케이션’의 성지로 주목받고 있다.

- 우리나라 지자체들도 지역축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최하여 외부 방문객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이제는 워케이션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새로운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미 강원도는 관광재단이 나서 기업들과 위케이션을 연계시키는 작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경남 남해, 전라남도, 제주도 등도 위케이션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 전주는 훌륭한 도서관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 전국에서 유일하게 도서관 여행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도시이다. 도서관 인프라를 위케이션에 접목하는 방안을 신속히 검토해야 하며, 더불어 기업과의 위케이션 연계를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 활용방안 및 도입과제

- 전주시 지난 8년간 도서관 정책을 추진하였고, 그 결과 전주시 대표 도서관인 전주시립도서관 ‘꽃심’, 호수와 시가 어우러진 학산숲속작은도서관, 리모델링해 새로운 복합문화공간으로 탄생할 완산도서관 등 세상에 하나뿐인 특화도서관들이 조성되고 있다. 이제 전주는 단순히 책을 읽고 빌리는 공간이 아닌 복합문화공간으로 자리잡은 도서관들을 활용해 위케이션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 특히 완산도서관의 경우, 100억 원 규모로 본관과 별관을 리모델링하여 매력적인 공간으로 탈바꿈될 예정이다. 완산동은 매년 30만 명이 찾는 꽃동산과 한빛마루 공원 사업, 완산병커, 초록바위 정비 등 산림 휴양을 즐길 수 있는 재생공간으로 재탄생할 예정이며, 지리적으로 한옥마을과 서학예술마을 중간에 위치하여 접근성이 우수하다. 또한, 전주시의 중심지로서 과거 전주의 모습을 보여

주는 건축물들이 잘 보존되어 있다.

가장 기대되는 부분은 워케이션을 하는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전주천 새벽시장(도깨비시장)이다. 이는 가장 매력적인 콘텐츠로서 개발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전주시는 완산동의 빈집을 매입하여 기업과 연계한 워케이션을 성지로 만들면, 완산동은 새로운 관광지의 중심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V.수집자료 및 참고문헌

1. KOTRA_박성진 2021년 뉴질랜드 관광산업 정보
2. 한국관광데이터랩_뉴질랜드지사 (뉴질랜드) 뉴질랜드 정부 관광 전략
3. 경남신문_주남저수지 생태관광의 길을 묻다 (4) '생태체험의 천국' 뉴질랜드
4. 전라일보_전북도, 체류형 생태관광 육성
5. 전라일보_[전북의 재발견] 전주 트레킹 코스 베스트 4 - 봄의 정취를 즐길 수 있는 걷기 좋은 곳
6. 이원덕, 2008, '영화 및 드라마 촬영지 지역특화 사례연구 및 발전방향'(2008년)
7. 광주일보_영화 촬영 명소에 가 볼 결심...명장면 속 그 곳에 내가 있네
8. 대한지방자치뉴스_전주시, 외국인 관광객 급격하게 증가